

比較剩餘價值論

林 元 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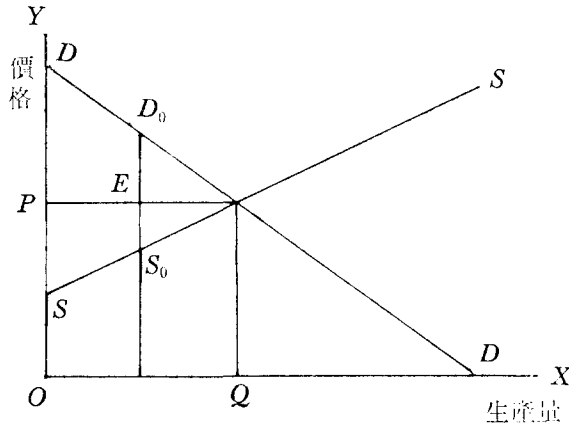
<目 次>

- I. 序 論
- II. Adam Smith의 剩餘價值論
- III. Ricardo의 剩餘價值論
- IV. J.S. Mill의 剩餘價值論
- V. Jevons·Walras의 剩餘價值論
- VI. Marshall·Clark·Marx의 剩餘價值論
- VII. Keynes·Schumpeter의 剩餘價值論
- VIII. Samuelson·Robinson·Sraffa의 剩餘價值論

I. 序 論

1. 우리는, 이미 第1篇 第1章 第7節에 있어, 經濟剩餘에 관하여 言及해 놓은 바가 있다. 그리고 經濟剩餘가 各 歷史的 段階에 있어 어떠한 形態로 現象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경우의 費用은 「代替費用」이 된다——이 適用되고 있는 領域에 있어서는) 消費者剩餘만이 現象되고 있는데 대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m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즉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경우의 費用은 「實質費用」이 된다——이 適用되고 있는 領域에 있어서는) 消費者剩餘만이 아니라 生産者剩餘=超過利潤도 同時에 現象되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物物交換 $W-W'$ 에 있어 나타나는 72의 (1) 또는 73의 (2) 또는 (3)의 聯立不等式은 消費者剩餘를 表示하고 있으며, 또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나타나는 161의 (19) 168의 (23)의 聯立不等式도 結局 消費者剩餘를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物物交換 $W-W'$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消費者剩餘의 獲得만이 交換의 唯一한 目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m \dots P \dots W' - G'$ 에 있어 나타나는 291의 (37)과 294의 (圖 2-13)은 「消費者剩餘+生産者剩餘(超過利潤)」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文中 이문테면 p.5의 第1行 110, 384는 林元澤 『第二資本論』에서의 110項目 384項目을 表示하고 p.47의 第26行의 [3]은 本論文에서의 3項目을 表示한 것임.



〈圖-1〉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의 目的은 「消費者剩餘를 미끼로 하는 超過利潤의 獲得」, 또다시 말하면 「消費者剩餘를 超過利潤으로 轉換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消費者剩餘의 轉形物서의 超過利潤」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즉 〈圖-1〉에 있어, 物物交換 $W - W'$ ·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는 均衡이 取해져 價格이 OP 去來量이 OQ 가 될 때, 「 $D_0 - S_0 =$ 需要者의 消費者剩餘(D_0E) + 供給者의 消費者剩餘(ES_0)」(이 경우의 SS 는 「代替費用曲線」)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 $D_0 - S_0 =$ 需要者의 消費者剩餘(D_0E) + 供給者의 超過利潤 (ES_0)」(이 경우의 SS 는 「實質費用曲線」)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2. 그러면 兩者의 差異는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前者 즉 物物交換 $W - W'$ ·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는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도 되고 있다는 (生産者=消費者) 前提위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해서, 後者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生産者=消費者」가 絶對로 成立되어서는 안된다는 前提위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物物交換 $W - W'$ 이나 單純商品生産 $W - G - W'$ 이나,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適用되고 있는 領域에 있어서는, 供給者(生産者)는 우선 「自家消費」하고 殘餘도 「自家消費」할 수 있지만 그것을 直接 「自家消費」하는 것보다 보다 커다란 全部効用을 갖고 있는 他商品(貨幣商品)의 一定量과 交換해서 消費하는 것이, 또는 그 貨幣商品을 使用해서 他商品을 購買하는 것이, 더 有利하다는 「半商品經濟」인데 대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供給者(生産者)는 自家消費해서는 絶對로 안되는 「全量」「即刻」「最大價格」으로 販賣해야 할 「完全商品」만을 保有하며, 그것을 消費者들에

게 消費者剩餘를 미끼로 해서 實質費用을 最大限引下하고 價格을 最大限으로 引上해서 販賣함으로써 剩餘價值=超過利潤을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獲得하는 搾取經濟體制이다. 그러므로 生産者는 技術革新을 不斷히 함으로써 ① 品質向上을 통해서 需要曲線을 上方으로 移價交換의 最大限價格引上을 企圖해야 하고, ② 極小平均費用을 最大限 引下함으로써 不等動시켜서 幅을 크게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物物交換 $W-W'$ ·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事後的」不等價交換이, 즉 交換當事者가 전혀 意識하지 않는 또는 意識하더라도 전혀 介意하지 않는 不等價交換에 의한 剩餘價值가 發生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言及해 놓은 바 있다(第1篇 第2章 第3節, 第4章 第2節). 그리고 우리는 物物交換 $W-W'$ ·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發生하는 「事後的」不等價交換을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라고 불렀으며, 한편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發生하는 「意圖된」不等價交換을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라고 부른 바 있다(361參照).

第1篇 第2篇에서 우리가 展開해 놓은 理論을 總括해서 圖表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圖-2〉).

<p>I.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D = D(P)$ $S = S(P)$ 「代替費用」이 適用된다. $D(P) = S(P)$</p>	<p>A. 物物交換 Jevons·Walras·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理論 B. 單純商品生産 Böhm·Bawerk의 價格理論 Walras·Hicks·Patinkin의 一般均衡理論</p>	<p>a. Marx의 等價交換理論 b. Malthus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p>
<p>II.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P = P(Q)$ $K = K(Q)$ 「實質費用」이 適用된다. $P(Q) = K(Q)$</p>	<p>C.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Marshall의 價格理論</p>	<p>c. A. Smith·Malthus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p>

〈圖-2〉

즉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가운데의 Jevons·Walras·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은 物物交換 $W-W'$ 에, 그리고 Böhm-Bawerk의 價格理論, Walras·Hicks·Patinkin의 一般均衡理論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各各 適用되는 同時에, 이들 理論은 Marx의 等價交換理論, Malthus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과 一致되며,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인 Marshall의 價格理論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되는 同時에 이것은 또 Adam Smith, Malthus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

과 一致된다는 것이다.

3.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超過利潤에 관한 定式을 確立해 놓은 바가 있다(368參照). 그것을 여기서 좀더 正確하게 明示化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事前」超過利潤=「事前」價格—實質費用 (A)
- =「事前」効用勞動量—支拂勞動量 (B)
- =「事前」支配勞動量—支拂勞動量 (C)
- =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賃金 (D)
- 「事後」超過利潤=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

(A)는 超過利潤이 流通過程 $W'-G'$ 에 있어 「生産者」와 「消費者」가 對立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發生되는 現象形態을 表示하고 있으며, (B)와 (C)는 그 本質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D)는 超過利潤이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 「資本家」와 「勞動者」가 對立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發生되는 現象形態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成立되고 또 「價值」表示의 限界生産力이 되고 있기 때문에 (A)와 (D)는 一致되는 表現이 된다. 그리하여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는 「資本家」對 「勞動者」의 對立은 「生産者」對 「消費者」의 對立과 一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事前」價格이 왜 發生되는가 하면, Robinson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價格은 販賣以前에 決定되어 있어야 한다.」(prices have to be chosen in advance of sales)⁽¹⁾가 成立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超過利潤도 「事前」超過利潤이 된다. 한편 實質費用은 「前拂」된 t 期の 費用이므로 t 期の 生産物이 販賣되기 以前에 現實적으로 勞動者의 手中에 存在하는 「事後」에 속한다. 그리고 t 期の 「事前」價格·「事前」超過利潤이 「事後」價格·「事後」超過利潤이 되기 위해서는 t 期の 生産物이 「事前」價格·「事前」超過利潤대로 全部 販賣되어야 그것이 t 期の 「事後」價格·「事後」超過利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t 期の 「事前」價格·「事前」超過利潤을 包含하고 있는 生産物이, 流通過程 $W'-G'$ 에 있어, 어떻게 販賣되어서 t 期の 「事後」價格·「事後」超過利潤으로 變化되는가 하는 것을 論하는 것은 「流通論의 延長으로서의 恐慌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事後」超過利潤은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이 된다.

4. 우리는 다음에 上記한 우리의 立場에 立脚해서 過去의 여러 經濟學者들의 剩餘價值에 관한 理論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比較檢討해 볼 心算이다. 思想의 發展은 結局 $A+B+C \dots$ 式으로 極大志向의 「蓄積의 發展」(development-by-accumulation)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

(1) J. Robinson &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revised edition, 1974, p. 168.

리의 생각이다. ⁽²⁾ Hegel의 用語로 表示하면 「抽象的인 것」(das Abstrakte)으로 부터 「具體的인 것」(das Konkrete)으로 發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가 到達한 剩餘價值에 관한 規定이 가장 「具體的」인 規定이라는 것을 剩餘價值學說史를 통해서 論證할 心算이다.

II. Adams Smith의 剩餘價值論

5. Adam Smith의 剩餘價值論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110, 364에 있어 Adam Smith의 勞動價值論은 投下勞動價值論과 支配勞動價值論의 二元論의 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前者는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데 대해서, 支配勞動價值論은, Adam Smith 自身이 明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的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게 된다고 言及해 놓은 바 있다.

그런데 Adam Smith는 投下勞動價值論의 前提위에서도 다음과 같은 剩餘價值論을 展開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勞動者가 原料에 대하여 附加하는 (add) 價值는, 이 경우 2個의 部分으로 즉 하나는 賃金으로 또 하나는 原料와 賃金의 前拂資本에 대한 雇傭者의 利潤으로 分解된다(resolve itself into two parts)」.⁽³⁾ 이 引用文章에 의해서 Adams Smith가 投下勞動價值論을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만 適用시키지 않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도 適用시켜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 Dobb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上記 Adam Smith의 引用文章) 우리는 控除利潤理論(deduction theory of profit)의 힌트(hint)를 볼 수 있다. 利潤도 地代도 實質的으로 (naturally) 또는 源泉的으로(originally) 存在하고 있는 勞動生産物로부터의 控除로서 取扱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리하여 여기서 ① Adam Smith의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確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은 ② 商品價値가 「固定」되고 있으며, ③ 따라서 賃金이 上昇하면 必然的으로 利潤이 下落되고 반대로 賃金이 下落하면 必然的으로 利潤이 上昇된다는 賃金과 利潤의 有機的 關聯(敵對的 關係)을 갖고 있다

(2) Th.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second edition, 1970, p. 2. Kuhn은 科學의 「蓄積의 發展」을 잘못 理解하고 있다.

(3)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Vol. 1, p. 50.

(4) M. Dobb, *The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1977, p. 45.

는 特色을 갖고 있다. 이 剩餘價值論의 系譜에 속하는 사람들로써 Ricardo·J.S.Mill·Marx·Sraffa 等을 들 수 있을 줄 안다. 사실 Dobb도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控除利潤理論은 어떤 意味에 있어 Marx의 控除利潤理論과 비슷한 擗取理論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 한편 Marx는 그의 『剩餘價值學說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mith는 여기서 (上記 Adams Smith의 引用文章) 明白하게 說明하고 있다. 商品의 販賣에 의해서 獲得되는 利潤은 販賣自體에 緣由하지 않는다. 特히 商品이 그 價值以上으로 販賣되어 獲得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讓渡利潤(profit upon alienation)이 아니다.」⁽⁶⁾ 즉 Marx는 이 Adam Smith의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控除利潤理論에 의해서 流通過程 $W' - 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 不等價交換에 의한 利潤發生理論을 攻擊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6. ② 그런데 Adam Smith는 한편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과는 正反對되는 또 하나의 超過利潤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狀態에 있어서는 勞動의 全生産物은 勞動者에게 歸屬되지 않는다. 勞動者는 그것을 대개 그를 雇傭한 資本의 所有者와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商品獲得 또는 生産에 投下된 勞動量이 支配하는 또는 購買하는 交換勞動量을 規制하는 唯一한 條件(the only circumstance)이 되지 못한다. 賃金과 原料에 대한 前拂資本의 利潤을 위해서 追加勞動量이 加算되어야 한다(an additional quantity must be due for the profits of the stock).」⁽⁷⁾

여기서는 流通過程 $W' - 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에 의한 利潤發生理論이 展開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Adam Smith는 明示적으로 「支配勞動量=投下勞動量+追加勞動量」이라는 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流通過程 $W' - 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과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과의 核心的 差異는, 後者가 ④ 商品價値가 「固定」되고 있고, ⑤ 賃金上昇 또는 下落在 利潤低下 또는 上昇과 必然的인 有機的 關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데 대해서, 前者는 ④ 賃金과 利潤이 「獨立的인 크기」를 갖고 있고 有機的 關聯性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⑤ 商品價値도 「可變」이 된다는 「構成理論」(adding up theory) 즉 「生産費理論」(cost of production

(5) *Ibid.*, p. 46.

(6) K.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herausgegeben von K. Kautsky, erster Band, 4 Aufl., 1921, S. 121.

(7) Adam Smith, *op. cit.*, p. 51.

theory)이 되고 있다는 點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⁸⁾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을 證明해주는 Adam Smith의 다음과 같은 文章을 紹介해 두기로 하자. 「地代는, 賃金과 利潤과는 別個의 方途에 의해서 商品의 價格構成(the composition of prices)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高賃金·高利潤 또는 低賃金·低利潤은 高價格 또는 低價格의 原因이 된다(high or low wages and profits are the cause of high or low price). 高地代 또는 低地代는 高價格 또는 低價格의 結果이다(high or low rent is the effect of it).」⁽⁹⁾ 즉 賃金과 利潤은 價格의 「構成部分」이 되지만 地代는 利潤의 「分解部分」이 된다는 것이다.

7. 그런데 Adam Smith는 그 流過程程 $W'-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을 「需要의 理論」 즉 限界效用理論으로 轉換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土地生産物 가운데에서 市場에 搬出되는 데 投下되는 資本을 回收하고 正常利潤도 確保할 만 한 市場價格(ordinary price)이 確保되는 部分만 市場에서 販賣될 것이다. 만약 市場價格이 그 以上이 될 때에는 그 剩餘는 地代가 된다. 만약 그에 未達할 때에는 土地所有者에게 地代를 支拂할 수가 없게 된다. 剩餘가 發生하느냐 發生못하느냐는 것은 需要에 依存하게 된다(depend upon demand).」⁽¹⁰⁾ 즉 需要가 支配勞動量=構成價格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즉 限界效用(效用勞動量)이 支配勞動量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③ 效用勞動量=支配勞動量의 「抽象的인」(不完全한) 規定을, 즉 「限界效用價值論과 支配勞動價值論은 一致된다」라는 命題의 「抽象的인」(不完全한) 規定을 Adam Smith에 있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8. 그런데 이 Adam Smith의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은 그의 「獨占價格」에 관한 理論展開에 있어 그 클라이막스에 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獨占價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獨占價格이란, 모든 경우, 獲得할 수 있는 最大價格이다(the highest which can be got). 自然價格 즉 自由競爭價格은 반대로 確保할 수 있는 最低價格이다(the lowest which can be taken). 獨占價格은 購買者들에게 強要될 수 있는 最大價格 또는 購買者가 應할 수 있는 最大價格(the highest which can be squeezed out of the buyers or which the buyers will consent to give)이다. 한편 自然價格은 販賣者가 받아야 할 最低價格이다(the lowest which the sellers can commonly afford to take).」⁽¹¹⁾

(8) M. Dobb, *op. cit.*, p. 46.

(9) Adam Smith, *op. cit.*, p. 147.

(10) *Ibid.*, p. 146.

(11) *Ibid.*, p. 63.

Adam Smith가 말하는 「獨占價格」 즉 「價格의 上限」과 「自然價格」 즉 「價格의 下限」은 Marshall에 이르러 「需要價格」 「供給價格」으로 轉換定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Adam Smith에 있어 「費用」은 곧 「實質費用」을 意味하고 있으므로, Adam Smith야말로 後에 Marshall이 完成해 놓은 「超過利潤=需要價格—供給價格」에 관한 理論과 眞正한 搾取理論을 「抽象的인」(不完全한) 形態로서나마 最初로 發見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자 한다.

그런데 Marx는 Adam Smith의 投下勞動量이 支配勞動量을 規制하는 「唯一의 條件」이 되지 못하며, 投下勞動量에 「追加勞動量」이 加算되어야 한다는 上記文章을 引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옳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을 前提로 한다면 對象化된 勞動量은 그 自體속에 包含되어 있는 勞動量以外에 항상 산(生)勞動의 追加량을 資本의 利潤을 위해서 購買한다. 즉 對象化된 勞動은 산 勞動의 一部分을 無償으로 獲得한다는 것, 즉 支拂하지 않고 獲得한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여기서 Adam Smith가 말하고 있는 것의 內容은 Marx가 極力 排斥하고 있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 즉 讓渡利潤(profit upon alienation)에 관한 理論이다. 그런데 Marx는 「이 말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무슨 矛盾인가.

그리고 ① Adam Smith의 第1部 價值論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의 경우에 있어서는 源泉의 所以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이 「價格」으로 取扱되고 있는 誤謬가 內包되고 있으나, ② Adam Smith의 第2部 價值論 流通過程 $W' - 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의 경우에 있어서는 「超過利潤=効用勞動量·支配勞動量(價格)—投下勞動量(實質費用)」이라고 되고 있으므로, 「實質費用」과 「價格」이 正當하게 區別될 수 있게끔 되고 있다.

III. Ricardo의 剩餘價值論

9. Ricardo는 Adam Smith의 二元論的 價值論 가운데에서 그의 第1部 價值論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을 繼承發展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交換價値의 源泉을 올바르게 즉 모든 財貨의 價値의 多寡는 生産에 投下된(bestowed on their production) 勞動量의 多寡에 따라서 決定된다고 한 Adam Smith는 〈別個의 標準價値尺度〉(another standard measure of value) 즉 財貨의 價値의 多寡는 그들 財貨가 交換(exchange)되는 勞動量의 多寡와 正比例한다는 立言

(12) K. Marx, *a.a.O.*, S. 143.

도 確立시켜놓고 있다.」⁽¹³⁾ 이렇게 Ricardo는 Adam Smith의 流通過程 $W'-G'$ 에서 成立되는 支配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을 排擊하고 生産過程 $W < \frac{P}{A}^m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을 繼承하고 있다.

그런데 Ricardo는 그의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을 「相對價值」(relative value)의 概念에 立脚해서 展開하고 있다. 「相對價值」란, 대강 Marx가 展開해 놓은 「抽象的 人間勞動」에 의한 交換比率이라고 생각하면 편참을 줄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反對概念인 「絕對價值」(absolute value)라는 것이 「異質的 勞動」(different qualities of labour),⁽¹⁴⁾ 「勞動의 精巧」(ingenuity)와 「熟練」(skill) 등에 있어서의 「不均等」(inequality)⁽¹⁵⁾ 즉 Marx의 「具體的 有用勞動」을 表示하는 概念으로 使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相對價值」·「相對的 勞動量」(relative quantity of labour)은 「異質的 勞動에 있어서의 比較評價度」(comparative degree of estimation in which the different kinds of labour are held.)가 되고 있는데도 그는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⁶⁾ Marx는 틀림없이 Ricardo의 「絕對價值」·「相對價值」概念으로부터 그의 「具體的 有用勞動」·「抽象的 人間勞動」의 概念을 誘導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Ricardo는 直接勞動뿐만 아니라 原料·道具·機械等に 包含된 「蓄積勞動」(間接勞動)도 交換價值構成의 一部分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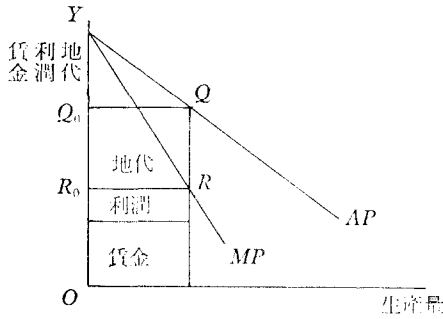
10. 그런데 「投下勞動量=價格」을 主張하는 投下勞動價值論을 取하는 立場에 하나 困難한 問題가 發生되는데, 그것은 同一種類의 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 生産者가 달라짐에 따라서 各 個別投下勞動量도 必然的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處理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즉 各 個別投下勞動量의 差異를 어떻게 處理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Adam Smith는 이 問題를 提起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Ricardo는 投下勞動價值論에 있어 當然히 發生되는 이 困難한 問題를 다음과 같이 處理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各 個別投下勞動量가 운데에 있어서의 「最大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이 그 商品一般의 「價格」 즉 交換價值를 表示한다고, 「모든 財貨의 交換價值는, 그것이 工業生産物이든 鑛産物이든 또는 土地生産物이든간에, 항상 가장 有利한 그리고 또 生産의 特殊便益을 갖고 있는 者가 獨占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事情아래서 그것을 生産하는데 所要되는 比較的 少量의 勞動에 의해서 決定되지 않고, 이러한 便益을 갖지 않으며 계속 가장 不利한 事情——

(13)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verymans Library,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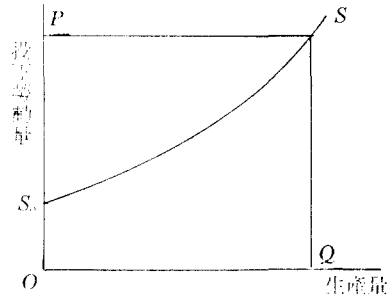
(14) *Ibid.*, p. 11.

(15) *Ibid.*, p. 12.

(16) *Ibid.*, pp. 11-12.



〈圖-3〉(1)



〈圖-3〉(2)

여기서 가장 不利한 事情이란, 必要生産物을 供給하기 위해서 行해지고 있는 生産의 條件이 가장 不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아래서, 그것을 生産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그 生産에 必然的으로 投下되는 比較的 多量의 勞動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¹⁷⁾ (497 參照). 그리고 또 Ricardo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最大投下勞動量(the greatest quantity of labour)으로 生産된 穀物이 穀物價格의 規制者가 된다.」⁽¹⁸⁾

① 이리하여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成立되는 投下勞動 價值論은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Ricardo는 이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이 工業生産物·農業生産物·鑛業生産物 全般에 걸쳐서 適用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事實에 있어서는 農業生産物 特히 穀物의 경우에 있어서만 適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同一量의 資本·勞動을 第1等地, 第2等地, 第3等地的 順으로 投下하면 穀物이 100, 90, 80퀴터의 「純生産物」(net produce) (이것은 資本의 利潤이 된다)이 生産된다고 하면, 第1等地, 第2等地, 第3等地的 農業資本家は 「同一의 利潤」(the same profits) 즉 80퀴터의 「純生産物」(賃金を 支拂한 後의 殘餘)을 利潤으로 獲得하고, 第1等地的 農業資本家は 20퀴터의 地代를 그리고 第2等地的 農業資本家は 10퀴터의 地代를 各各 各土地所有者에게 支拂하며 第3等地(즉 限界耕作地)에서는 地代를 支拂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¹⁹⁾ Ricardo가 地代를 說明하기 위해서 例示한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은 〈圖-3〉의 (1)·(2)가 되고, 穀物價格은 限界耕作地의 最大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 SQ가 되며 따라서 限界耕作地에서는 地代가 發生되지 않지만, 限界內耕作地에서는 〈圖-3〉(1)에 있어서의 R_0RQQ_0 또는 〈圖-3〉(2)에 있어서의 PS_0S 만큼의 農業超過利潤 즉 地代가 發生되

(17) *Ibid.*, p. 37.

(18) *Ibid.*, p. 40.

(19) *Ibid.*, pp. 35-36.

게 된다는 것이다. Ricardo는 「劣等地에는 보다 많은 勞動量(more labour)이 要求된다」고 함으로써 費用遞增의 法則을 明示적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⁰⁾ 이리하여 Ricardo에 의하면, 穀物生産에 있어 發生되는 農業超過利潤 R_0RQ_0 또는 PS_0S 는 모두 地代로서 地主에게 歸屬되고 農業資本家에게는 「同一의 利潤」 80쿼터만이 歸屬될 수 있게 된다고 되고 있다.

Ricardo의 이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의 基底에는 이와같이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 (그 基礎를 이루고 있는 것은 固定要素 土地의 肥沃度の 差異이다) 이 介在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1. 그러면 이러한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의 基礎위에서는 어떠한 剩餘價值論이 展開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便宜上 Ricardo에 있어 나타나는 「平均利潤」에 관한 理論을 먼저 檢討해 보기로 하자. Ricardo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다 有利한 事業으로 轉換하기 위해서 보다 不利한 것을 拋棄하려는 모든 資本使用者의 이 不斷한 慾望은 모든 것의 利潤率을 均等化하려는 傾向(tendency to equalise the profits of all)을 갖는다.»⁽²¹⁾ 즉 Ricardo는 資本의 移動을 前提로 해서 그로부터 「平均利潤率」에 관한 理論을 誘導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同一의 利潤」 80쿼터는 바로 그 「平均利潤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Ricardo의 平均利潤率理論이 內包하고 있는 第1의 問題點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私見에 의하면 「同一의 利潤」은 「正常利潤」이 되어야 하고 「平均利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私見에 의하면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과 「平均利潤率」概念은 서로 矛盾되며 兩立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理由를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地主에 歸屬되는 地代는 그 本質이 農業超過利潤이므로, 그것을 超過潤利으로 取扱한다면, 第1等地, 第2等地, 第3等地는 各各 「相異한 利潤率」을 發生하게 된다는 理論이 成立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各等地는 「相異한 利潤率」을 發生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各等地는 「相異한 土地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誘導하고자 한다. 즉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의 立場에 있어서는 「平均利潤」의 概念은 成立될 수가 없게 되며, 다만 「正常利潤」의 概念만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立場에 立脚해서 본다면, 「同一의 利潤」이라는 것은 「平均利潤」이 아니라 「正常利潤」이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

(20) *Ibid.*, p. 38.

(21) *Ibid.*, p. 48.

을 줄 생각한다. 따라서 「市場으로부터 驅逐되지 않고」 「事業을 계속할 수 있는 條件」이 되는 「通常的 一般的 利潤率」(the usual and general rate of profits)이라는 것도 「平均利潤」이 아니고 勿論 「超過利潤」도 아닌 「正常利潤」을 呼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最大投下勞動量 (限界投下勞動量)은 賃金과 正常利潤의 2部分만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非最大投下勞動量 즉 限界內投下勞動量은 賃金과 正常利潤의 2部分外에 地代로 轉換되는 超過利潤도 包含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剩餘價值論이 誘導될 수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㉔ 「格差있는 超過利潤」은, 穀物生産의 경우에 있어, 「格差있는 土地生産性」으로부터 發生된다는 것과, ㉕ 또 하나, 投下勞動價值論이 等價交換理論이 되는 것은 限界耕作地만의 경우에 있어서이며, 其他 非最大投下勞動量 즉 限界內投下勞動量의 경우에 있어서는 事實상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되므로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最大投下勞動價值論 (限界投下勞動價值論) = 等價交換의 理論은 事實상에 있어서는 支配勞動價值論 = 不等價交換理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Ricardo 自身도 ㉔, ㉕를 肯定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資本家は 그의 資金を 有利하게 使用하기 위해서 어떤 한 職業이 他職業보다 가질 수 있는 모든 長點(all the advantages)을 考慮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安全性(security) 淨潔(cleanliness), 安易性(ease) 그리고 其他 他企業이 갖고 있지 않는 그 企業의 長點을 考慮해서 利潤의 一部를 自進 投下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企業은 20% 어떤 企業은 25% 어떤 企業은 30%의 利潤이 發生되며, 이 相對的 差異는 永久히 繼續될 것이다.」⁽²²⁾ 즉 明示的으로 「平均利潤率」의 成立을 否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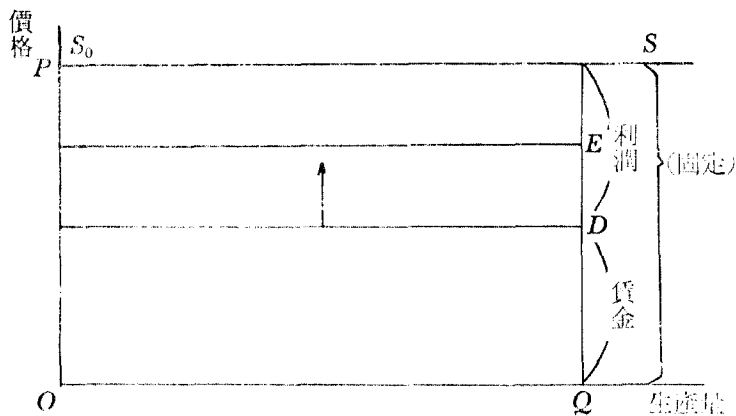
그리하여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과 그 위에 立脚한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은 事實에 있어서는 支配勞動價值論 = 不等價交換理論과 그로부터 誘導되는 剩餘價值論에 다름이 없으며, 그의 敵인 Malthus의 剩餘價值論(358參照)과 同一한 것이며, 이 限界內에 있어서는, Ricardo의 第1部 價值論은 옳다고 할 수가 있고 생각한다. 이 올바른 Ricardo의 第1部 價值論은 J.S. Mill을 거쳐 Marshall에 이르러 完成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Ricardo에게는 第2部 價值論이 있다. 즉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는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이다. 다음에는 이 Ricardo의 第2部 價值論을 보기로 하자.

12. ㉔ 다음에 Ricardo도 第2部 價值論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

(22) *Ibid.*, p. 49.

理論을 取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Ricardo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穀物과 工業生産物이 항상 同一의 價格(the same price)에 의해서 販賣된다고 假定한다면, 利潤은 賃금이 낮은가 높은가에 反比例해서 높거나 낮게 될 것이다. 만약 穀物이 그것을 生産하는 데 投下되는 勞動量이 增加되기 때문에 (more labour) 그 價格이 上昇한다고 假定하자. 이것은 그 生産에 아무런 追加勞動量(no additional quantity of labour)도 必要로 하지 않는 工業生産物의 價格을 上昇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므로 만약 賃금이 穀物價格上昇과 더불어 上昇한다면——이것은 絶對적으로 確實하다(absolutely certain)——그들의 利潤도 必然적으로 低下되게 될 것이다.」(傍點筆者)⁽²³⁾ 여기서 Ricardo는 農業生産 特히 穀物生産에 있어서의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適用되지만,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收穫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이 作用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工業生産에 있어 適用되는 Ricardo의 第2部 價值論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을 主張하고 나섰다. 즉 穀物生産에 있어서는 1單位の 穀物을 增産하는데 「더 많은 投下勞動量을 必要하지만」, 工業生産에 있어서는 1單位の 工業生産物을 增産하는데 「더 많은 投下勞動量을 必要로 하지 않으며」前單位生産物에 投下된 勞動量과 同一의 勞動量이 投下되던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Ricardo가 同一小規模完全競爭狀態에 있는 工業生産을 想定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農業生産에 適用되는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사실은 前記한 바와 같이 支配勞動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이 되지만)과 併行해서 工業生産에 適用되는 Ricardo의 第2部 價值論 즉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分解價



DE=賃金上昇幅=利潤低下幅

<圖-4>

(23) *Ibid.*, p. 64.

值論이 成立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圖-4).

그런데 工業生産에 適用되는 Ricardo의 第2部 價值論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分解價值論이 또한 控除利潤理論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引用한 Ricardo의 文章은 表示하고 있다. 왜냐하면 上記引用文章은 ㉠ 穀物生産에 있어 必然的으로 發生되는 「穀物價格上昇」은 ㉡ 工業生産에 있어 「工業生産物價格固定」이라는 前提위에 必然的으로 「賃金上昇→利潤低下」의 現象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控除利潤理論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cost-push에 의한 價格上昇否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3. 지금 工業生産物の 「同一의 價格」이 Ricardo의 所謂 「自然價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Ricardo는 「自然價格」을 「市場價格」과 對比시켜 놓고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自然價格」이란 「그 生産에 必要한 投下勞動量」(labour necessary to their production)이며 그 속에는 「모든 産業에 있어서의 資本의 利潤이 同一率」(the same rate)이 되는 利潤이 包含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한 利潤率을 Ricardo는 또 「一般的 調停的 利潤率(the general and adjusted rate of profits)」이라고도 말하고 있다.⁽²⁴⁾ 여기서 「一般的 調停的 利潤率」이 「平均利潤率」이 아니고 「正常利潤」이라고 한다면, 「自然價格」은 最大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의 경우에도 그리고 同一各個別投下勞動量의 경우에도 꼭같이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穀物生産의 경우에 있어서는 「自然價格」은 最大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限界投下勞動量을 除外한 限界內投下勞動量은 「自然價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限界投下勞動量=自然價格」이라고 한다면 限界內投下勞動量의 穀物의 自然價格속에는 自然價格에는 包含되어서는 안될 超過利潤=地代도 包含되게 될 것이다. 結局 農業生産에 適用되는 第1部 價值論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의 경우에 있어서는 「自然價格」概念은 成立될 수가 없게 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될 줄 안다.

14. 「自然價格=最大投下勞動(限界投下勞動量)」이라고 한다면 控除利潤理論도 이 「自然價格=最大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을 土臺로 해서 展開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言及하기 前에 우리는 먼저 Ricardo의 「一般的 調停的 利潤率」 즉 「正常利潤」의 本質이 무엇이나에 관해서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端的으로 말하면 그것은 原料·道具·機械 즉 間接勞動(蓄積勞動)에 대한 代價라는 理論밖에는 Ricardo로부터는 誘導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Ricardo에 의하면 全生産物의 價值는 賃金과 利潤의 2部分으로 되고 있으며, 거기서 原料費·減價償却費가 除外되고 있으며, 한편 全生産物은

(24) *Ibid.*, p. 50.

또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해서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의 2部分으로 構成되고 있고, 그리고 賃金은 直接勞動에 대한 代價라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Ricardo에 있어서는 $C=M$ 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rx도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Ricardo는 不變資本이라는 概念에 想到하지 못했다.」⁽²⁵⁾ 이것은, 換言하면, 「利潤은 生産費」라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Ricardo의 친구 兼 弟子이기도 했던 James Mill은 「利潤은 蓄積勞動에 대한 賃金」(the wage of hoarded labour)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⁶⁾ 이 利潤에 관한 規定은 James Mill이 Ricardo를 대신해서 確立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가. 사실 Ricardo는 이 말을 그의 『經濟學原理』에서 다음과 같이 確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althus氏는 費用(cost)과 價值(value)는 同一(the same)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學說이라고 하고 있다. 만약 그가 費用이 利潤을 包含하는(include) 〈生産費〉(cost of production)를 意味한다면 Malthus의 말은 옳다.」(傍點筆者).⁽²⁷⁾ Malthus는 여기서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을 Ricardo는 「價格」으로 잘못 取扱하고 있으며 「生産費로서의 利潤」을 主張하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自然價格」内部에 包含되는 「一般的 調停的 利潤率」은 「正常利潤」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그리고 穀物生産의 경우 土地肥沃度の 差異에 起因하는 超過利潤은 地代로서 地主에게 歸屬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 「間接勞動(蓄積勞動)의 代價로서의 利潤」은 무엇이란 말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正常利潤」이 되어야 하며 「超過利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正常利潤」은 「生産費로서의 利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現象이 發生되게 될 것이다. 穀物生産의 경우에 있어서는 人口增加에 따라서 부단히 劣等地가 耕作되어야 하므로 穀物價格 즉 그 「自然價格」도 부단히 上昇하게 되므로 先사 賃금이 上昇된다고 하더라도 利潤의 低下가 相殺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控除利潤理論은 農業生産에 適用되는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最大 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構成價值論에 있어서는 成立될 수가 없게 된다는 結論이 誘導된다.

다음에 「自然價格」이 工業生産物에 있어서의 同一各個別投下勞動量이라고 한다면 分解價值論과 控除利潤理論도 원만히 成立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즉 <圖-4>에서 모든 工業生産物價格 즉 工業生産物의 「自然價格」이 同一한 OP 로 「固定」되고 있으므로 DE 만큼 賃금이 上昇되면 DE 만큼 利潤이 低下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超過利潤을 包含하지 않는 「自然

(25) K.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Zweiter Band Erster Teil, 4. Aufl., 1921, S. 10.

(26) James Mill,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1825, p. 102.

(27) D. Ricardo, *op. cit.*, p. 30.

價格」概念은 工業生産에 있어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이 成立하고 있는 第2部 價値論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 Ricardo는, 그의 『經濟學原理』에 있어, 生産에 있어서의 生産手段(間接勞動)과 勞動(直接勞動)의 結合比率을 問題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icardo에 의하면, A, B, C 3인이 第1년에 各各 100名の 勞動者를 動員해서 第1년에 A, B 2人は 機械를, C는 穀物을 生産했다고 한다면 2臺의 機械의 各各과 穀物은 同一의 價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3인이 生産한 商品이 同一勞動量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第2년에 A, B는 第1년에 生産해 놓은 機械를 使用해서 各各 衣服과 綿製品을 生産하고 한편 C는 穀物만 生産한다면 衣服 또는 綿製品과 穀物의 價値比는 2對 1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2對 1以上」이 되어야 한 다고 하고 있다. Ricardo는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은 例示에 의해서 說明하고 있다. 만약 各 勞動者에 대해서 1人에 50磅이 支拂된다고 하면 資本投下額이 5,000磅이 되고 平均利潤率을 10%라고 한다면 第1年末에 있어 機械의 各各과 穀物의 價値는 5,500磅이 된다는 것이다. 第2년에 있어 A, B 2人は 資本 5,000磅을 投下하여 勞動者를 雇傭하고 第1년에 生産해 놓은 機械를 使用해서 衣服, 綿織物을 各各 生産해서 販賣할 때에도 5,500磅이 될 것 같지만, C와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는」(to be an a par with)⁽²⁸⁾ 機械에 投下된 5,500磅에 대한 10%의 利潤으로서의 550磅이 거기에 附加되어 衣服, 綿織物의 價値는 各各 6,050(=5,500+550)磅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Ricardo는, Marx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機械 즉 不變資本 C를 加算하지 않고 있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 Ricardo는 꼭같은 것을 說明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例示도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는 第1年初에 1,000磅을 投下하여 20名の 勞動者를 雇傭해서 生産하고 第2年初에 역시 1,000磅을 投下하여 20名の 勞動者를 雇傭해서 生産을 繼續해서 第2年末에 生産物을 販賣할 때에는, 利潤率을 10%라고 한다면, $2,310 = [(1,000 \times 1.1) + 1,000] \times 1.1$ 磅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B는 第1年初에 2,000磅을 投下해서 勞動者 40名을 雇傭해서 第1年末에 生産物을 販賣할 때에는, 利潤率이 10%라고 한다면, 그 價値가 $2,200 = 2,000 \times 1.1$ 磅이 된다고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관해서, ① 「하나의 商品의 價値가 보다 높은 것은 그것이 市場에까지 運搬되는 데 걸리는 時間(the greater length of time which it must elapse before it can be brought to market)이 보다 길기 때문」⁽²⁹⁾이라고 함으로써 「市場에 運搬되기까지의 時間」도 價値構成의 1要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또는 ② 「利潤이 抑制되는 時間에 대한 補償」(compensation for the time that the profits

(28) *Ibid.*, p. 21.

(29) *Ibid.*, p. 21.

were withheld)⁽³⁰⁾ 즉 「制慾도 投下勞動量의 一部分」이 되기 때문이라고 Ricardo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Ricardo의 「時間」理論은 後日 ① Senior, Marshall 等に 의해서 制慾理論으로 繼承發展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② 또 한편 樣相을 달리해서 Böhm-Bawerk 에 의한 迂回生産理論展開의 契機로서도 (410 註184參照) 各各 發展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을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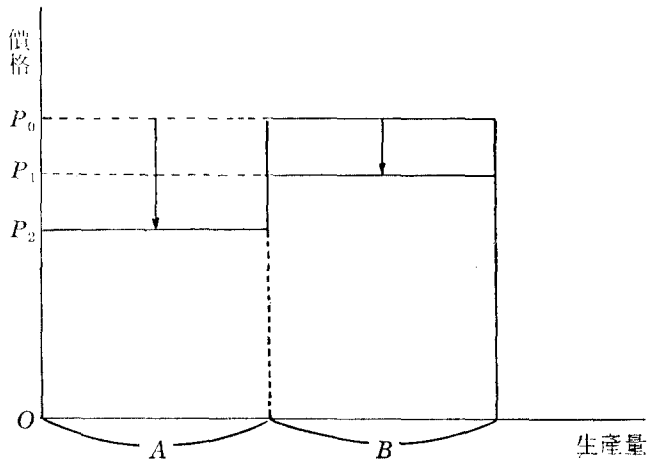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Ricardo의 「時間」理論에 있어 重要的 錯覺이 介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Ricardo의 경우, 第1年에 機械를 生産하고 第2年에 自己가 生産해 낸 機械를 使用해서 衣服, 綿織物을 生産한다는 發想은 交換이 없는 「自給自足」經濟를 想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資本主義的 商品 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절대로 그러한 現象은 發生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時間」을 「迂回生産」으로 發展시켰던 Böhm-Bawerk의 경우에 있어서도, Ricardo의 경우와 똑같이, 交換이 存在하지 않는 「自給自足」經濟를 想定하고 있다.) (410參照)

이것은 곧, Ricardo의 경우에 있어, 生産에 있어서의 生産手段(間接勞動)과 勞動(直接勞動)과의 結合方式에 관한 理論展開가 根本的으로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런데 또 Ricardo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怪異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賃金이 上昇되면 그에 따라서 利潤도 必然的으로 低下되게 된다는 것은 그의 同一各 個別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 즉 「生産物價格=固定」이라는 前提로부터 即刻 誘導될 수 있는 結論인데, 여기서 Ricardo는 若干 旋回해서 賃金이 上昇하여 利潤이 低下되면 價格도 「變動」을 일으킨다는 理論의 屈折을 企圖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A, B가 C와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 ① 「즉 利潤이 抑制되는 補償」으로서 ② 「生産物이 市場에 運搬되는 時間」을 勘案해서 5,500磅에다가 550磅이 加算된 A, B의 生産物의 價格이 6,050磅이 된다는 理論을 Ricardo가 展開해 놓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가 있지만, 계속해서 Ricardo는 賃金上昇에 의해서 利潤率이 10%에서 9%로 低下했다고 한다면, A, B의 生産物의 價格은 6,050磅으로부터 5,995磅(5,500 + 495(5,500 × 0.09))으로 下落된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機械 즉 生産手段의 勞動에 대한 結合比率이 크면 클수록 追加利潤(550磅, 495磅 等)의 下落幅이 더 커져서 生産物의 價格의 下落幅도 더 커질다고 하고 있다.

이 Ricardo의 理論旋回를 檢討하기 前에, 우리는 이 理論旋回를 Ricardo가 工業生産物의

(30) *Ibid.*, p. 23.



〈圖-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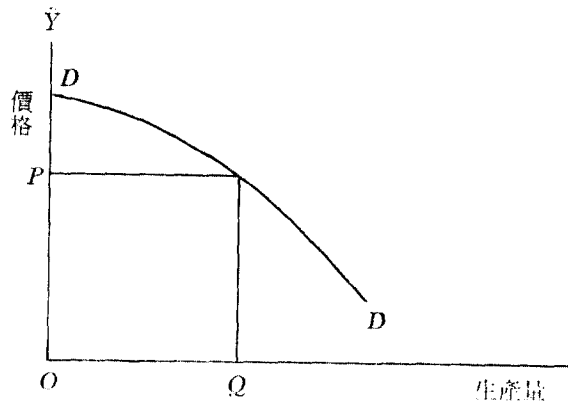
경우에만 適用시키고 있다고 前提해 두기로 하자. 즉 工業生産에만 適用되는 Ricardo의 第 2部 價値論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値論·分解價値論·控除利潤理論이 適用되는 경우에 이 Ricardo의 理論을 適用시켜 보기로 하자. 便宜上 「勞動의 生産手段에 대한 低比率」(Sraffa의 用語로써 表示하면)의 企業을 A라고 하고 「勞動의 生産手段에 대한 高比率」의 企業을 B라고 해 두기로 하자. 그럴때 Ricardo가 말하는 대로의 「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의 因果關係를 適用시키면 〈圖-4〉는 〈圖-5〉와 같이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즉 同一産業에서 「低比率」企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은 A企業은 賃金이 變動을 일으키기 前의 價格 OP_0 로부터 「賃金上昇→利潤低下」으로 價格이 OP_2 로 下落되었는 데 대해서, 「高比率」企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은 B企業은 價格이 「賃金上昇→利潤低下」으로 OP_1 으로 下落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工業生産에만 適用된다고 한 Ricardo의 第 2部 價値論「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値論이 變形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費用不變」(同一小規模 完全競爭)이 「費用遞增」(異規模不完全競爭)으로 轉換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費用」이, Ricardo의 경우에 있어, 곧 「價格」을 表示하고 있으므로, 同一商品에 價格이 둘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리하여 Ricardo의 「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에 관한 理論은 投下勞動價値論에도 違背되는 完全한 넌센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Ricardo가 왜 이러한 넌센스理論을 展開했을까. 이때까지 몇번 重複해서 說明한 바와 같이, 「實質費用」이 되는 「投下勞動量」을 영똥하게도 「價格」으로 取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價格」을 投下勞動量에 의해서 說明하려고 하는 投下勞動價値論의 誤謬의 一端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이 誤謬는 Marx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 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

의 命題와 꼭 같은 內容의 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icardo는 「低比率」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는 賃金引上으로 그 商品의 「價格」을 「高比率」 企業의 商品價格 下落보다 더 크게 下落시켜 놓았다고 했는데 대해서, Marx는 「低比率」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는 「利潤率」을 下落시켜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 Ricardo와 Marx에게 묻노니 무엇때문에 하는 「低比率化」요 또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냐는 것이다. 「低比率化」·「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의 目的은 「極小平均費用의 減縮」과 「品質向上」을 통한 需要曲線의 上方으로 移動(즉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더 비싸게 팔아먹자는)라는 것은 兪장사·지계꾼도 다 알고 있는 事項이다. 이것은 理論經濟學全體를 左右할 수 있는 重大한 論點이다. J.S. Mill은 다음과 같은 名言을 吐露하고 있다. 「政治經濟學에 있어서의 最大誤謬는 萬人이 다 아는 眞理를 無視하는 데에서 發生한다」(In political economy the greatest errors arise from overlooking the most obvious truths). 이 各言은 다름아닌 Ricardo와 Marx 그리고 Ricardo의 誤謬를 擴大再生産하려고 하는 Sraffa 等에게 가장 잘 適用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³¹⁾ 그런데 나중에 이 問題를 멋있게 解決해 낸 사람이 다름아닌 바로 Marshall이다.

18. Ricardo에게는 또 하나의 第3部 價值論이 있다는 것도 沒却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즉 限界効用 價值論이다. Ricardo에 의하면 어떤 商品의 價值는 稀少性 (scarcity)에 의해서 즉 「그 商品을 갖고자 願하는 慾望의 強度」(inclination of those who are desirous to possess them)에 의해서 測定된다고 하고 있다⁽³²⁾(圖-6).

그리고 이 限界効用 價值論은 그의 「獨占價格」의 規定에 있어서도 表示되고 있는 것을 볼



〈圖-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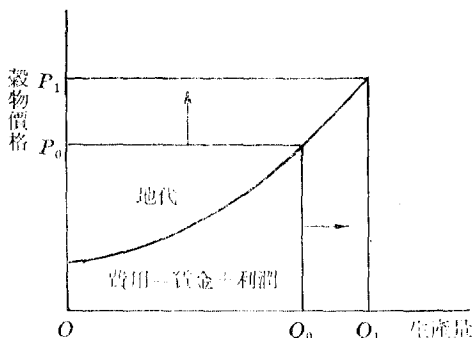
(31) J.S. Mill,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920, p. 436.

(32) D. Ricardo, *op. cit.*, p. 6.

수 있다. 「獨占價格」을 Ricardo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消費者가 支拂을 不辭하는 最高價格」(the very highest price at which the consumers are willing to purchase)⁽³³⁾ 여기서 우리는 Adam Smith에 의해서 確立되었던 「獨占價格」이 Ricardo에게도 그대로 傳承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內容은 Marshall이 提示해 놓은 「需要價格」과 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37參照). 그리고 이 Ricardo의 第3部 價值論 즉 限界効用價值論은 Malthus의 支配勞動價值論과 完全히 一致된다는 것도 말할 것 없다. 즉 Ricardo의 「消費者가 支拂을 不辭하는 最高價格」은 Malthus의 「需要의 強度」와 完全히 一致된다는 말이다(344參照). 그런데 Ricardo에 의해서 이 第3部 價值論은 表面에 浮上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沒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 Ricardo의 價值論과 體系는 結局 다음과 같이 簡單하게 表現될 수가 있을 줄 안다.

資本蓄積→勞動에 대한 需要의 增加→賃金上昇→人口의 增加→劣等地의 耕作→穀物生産의 最大投下勞動量增加→穀物價格上昇→賃金上昇→地代(「農業超過利潤」)增加
이 關係는 <圖-7>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圖-7> 穀物價格上昇

이것은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이며, 穀物生産에 適用되고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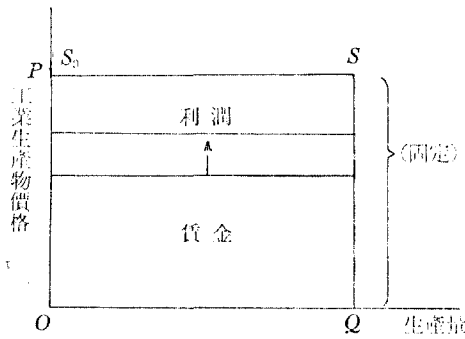
다음에는 또 下記와 같은 關係가 工業生産에 있어 成立되게 될 것이다.

賃金上昇→利潤率(「工業正常利潤」)低下

이 關係는 <圖-8>에 의해서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工業生産에 있어 適用되는 Ricardo의 第2部 價值論 즉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이다. 이리하여 Ricardo의 體系와 價值論은 上記 2個部分에 의해서 要約될

(33) *Ibid.*, p. 164.



〈圖 -8〉工業生產物에서의 利潤率下落

수가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2個의 問題가 發生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한다. ① 穀物價格에 包含되는 「正常利潤率」과 工業生產物에 包含되는 「正常利潤率」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前者의 경우는 「不變同一의 正常利潤率」이 維持될 수 있는데 대해서 後者의 경우는 「繼續的인 正常利潤率低下」現象이 發生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Ricardo의 體系에 있어서는 「二元的 正常利潤率」現象이 發生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同一」의 「平均正常利潤率」만이 發生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工業生產物價格에 包含되고 있는 低下過程에 있는 正常利潤率水準으로 穀物價格에 包含되어 있는 正常利潤率도 계속 低下된다는 理論을 展開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즉 工業에 있어서의 正常利潤率在 農業에 있어서의 正常利潤率을 決定함으로써 「平均」正常利潤率在 成立된다는 식의 理論展開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通說 즉 「Ricardo의 理論에 있어서는 農業利潤이 其他 모든 產業의 利潤을 規制한다」에 賛成할 수 없다. ② 工業生產에 있어 收穫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이 成立된다는 것은, 즉 〈圖-4〉에 있어 S_0S_1 이 X軸에 平行이 된다는 것은, Ricardo時代에 있어서는, 社會全體로 볼 때에는, 小資本·小規模의 諸企業들이 完全競爭狀態下에 있었다는 것으로 解釋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理論에 의해서 틀린 形態로서나마 不完全競爭理論도 若干 取扱했다는 것도 된다는 것을 添記해 두기로 한다.

第3部 價值論은 Ricardo의 體系에 있어 하나의 附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에 의한 價格變動理論은 完全히 하나의 蛇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해 두어야 하겠다.

IV. J.S. Mill의 剩餘價值論

20. J.S. Mill은 Ricardo의 價值論을 그대로 繼承해서 그것을 發展시켰다고 할 수 있다.

J.S. Mill은 効用勞動二元基準價值論을 主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商品이 交換價值를 獲得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個條件을 具備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効用」과 「獲得困難」(difficulty of attainment)의 두가지이다. 그리고 効用은 그 交換價値의 「上限」(extreme limit)을 形成하고 있으며, 「獲得困難」도 다음의 3種類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³⁴⁾ ① 「供給의 絶對的 制限」(absolute limitation of the supply)이 있는 特殊한 種類의 葡萄酒, 古代의 名酒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하고 있으며, ② 一定의 勞動과 費用投下에 의해서 「無制限」(no limit)으로 그리고 「同一한 費用」(the same cost)으로 獲得될 수 있는 工業生産物과 그리고 ③ 보다 多量으로 生産되기 위해서는 「보다 큰 費用」(greater cost)이 投下되어야 하는 農業生産物 等 3種類이다. ⁽³⁵⁾ 이리하여 J.S. Mill의 價值論·剩餘價值論도 第3部 價值論 즉 限界効用價值論이 適用되는 경우와 第2部 價值論 즉 同一各個別投下 勞動價值論 즉 收穫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이 適用되는 工業生産物의 경우와 第1部 價值論 즉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適用되는 農業生産物의 경우로 3種類로 分類될 수 있게 될 줄 안다.

21. ① 第3部 價值論 즉 限界効用價值論이 適用될 경우에 있어서는 「價値는 需要에 의해서 決定된다」(Value depends upon the demand)고 되고 있다. ⁽³⁶⁾ 이 경우에 「獨占價格」도 成立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 第3部 價值論 즉 限界効用價值論은 Ricardo의 第3部 價值論과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J.S. Mill의 第3部 價值論도, Ricardo의 第3部 價值論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表面에 浮上되지를 않고 하나의 附錄으로 되고 있다(〈圖-6〉參照). 그런데 J.S. Mill은 第3部 價值論 즉 限界効用價值論을 Malthus로부터 繼承했다는 痕跡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供給에 需要가 一致될 때까지 價値는 높아지고 供給과 需要는 一致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³⁷⁾ 이 말은 Malthus의 「供給과 比較된 需要」와 꼭 같은 것을 意味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44·346參照). 여기서 Marshall의 「一時的 均衡」理論도 示唆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② 그리고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適用되는 J.S. Mill의 第2部 價值論 즉 同一各個別投

(34) J.S. Mill, *op. cit.*, p. 442.

(35) *Ibid.*, pp. 444-445, p. 569.

(36) *Ibid.*, p. 446.

(37) *Ibid.*, p. 447.

下勞動價值論이 分解價值論이 되고 있다는 것도,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適用되고 있는 Ricardo의 第2部 價值論으로부터의 繼承이라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Ricardo의 경우에 있어 $C=M$ 이 되고 있었는데 대해서, J.S. Mill은 그것을 嚴密히 區分하고 $C+V+M$ 의 體系를 完成시킴으로써 Ricardo보다 一步前進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商品이 700磅으로 販賣되고 그 가운데에서 500磅은 賃金, 200磅은 利潤이라고 하자. ……만약 500磅의 價値를 갖고 있는 機械가 그 價値의 5分の 1씩을 年年 使用해서 消耗한다고 하면, 그 損失을 補償하기 위해서 商品價格은 800磅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J.S. Mill에 있어서는 減價償却費·原料費가 價値構成要素로서 計算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 그리고 J.S. Mill은 資本은 「制慾의 結果」(the result of abstinence)라고 하고, 「制慾의 報酬는 利潤」(the return for abstinence is profit)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⁹⁾ 그리고 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利潤은 資本家가 費用을 報償받은 後에 남는 剩餘(the surplus)에 그치지 않고」 「利潤은 賃金과 같이 生産物의 價値를 決定하는 生産費가 된다.」(profits as well as wages enter into the cost of production which determines the value of the produce)⁽⁴⁰⁾

J.S. Mill은 「中心價値」(center value), 「最小價値」(minimum value), 「必要價格」(necessary price) 등의 用語를 「通常利潤」(ordinary profit) 또는 「最低利潤率」(the lowest rate of profit)을 包含하고 있는 工業生産物價格을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 工業生産物이 「無制限으로 同一費用으로」(in indefinite quantity at the same cost) 生産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圖-4〉 參照). 그리하여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있어 「長期價格은 生産費에 의해서 決定된다」(permanent value is determined by the cost of production)고 하고 있다.⁽⁴¹⁾ 즉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있어 收穫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圖-4〉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㉑ the same cost와 necessary price를 同一視함으로써 「費用」과 「價格」을 混同하고 있는 Ricardo의 遺産을 그냥 볼 수 있으며, ㉒ 그리고 「生産費로서의 正常利潤」을 提示함으로써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위에 立脚해서 展開해 놓은 Ricardo의 또 하나의 遺産(왜냐하면 前記한 바와 같이 Ricardo는 「制慾」도 投下勞動量으로 看做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을 明確하게 把握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㉓ 그리고

(38) *Ibid.*, p. 464.

(39) *Ibid.*, pp. 401-402.

(40) *Ibid.*, p. 462.

(41) *Ibid.*, p. 569.

賃금이 上昇하면 必然的으로 利潤이 低下된다는 理論을 展開함으로써 同一各個別投下勞動 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을 展開해 놓은 點에 있어서도 그는 Ricardo의 後繼者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高賃금이 高物價를 가져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amazingly folly), 賃금이 높으면 그 結果로서 利潤이 低下되며 이 結果는 避할 수가 없다.」⁽⁴²⁾ 이리하여 J.S. Mill도 Ricardo의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㉑ 그러나 J.S. Mill은 Ricardo의 $M(C)+V$ 를 發展시켜서 $C+V+M$ 으로 完成시켜 놓은 功績은 단연 認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㉒ 그리고 J.S. Mill은 正常利潤 즉 「通常利潤」 또는 「最低利潤率」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明示함으로써 Ricardo를 凌駕하고 있다. (1) 「制慾에 대한 報酬」(the remuneration of abstinence)로서의 利子, (2) 「危險」(risk)에 대한 報酬로서의 「保險」(insurance), (3) 「努力」(exertion)과 거기에 대한 報酬로서의 「監督賃金」(wages of superintendence)⁽⁴³⁾ ㉓ 그리고 J.S. Mill은 「投下勞動量」이라는 概念보다는 「費用」이라는 概念을 더 많이 使用하고 있다. 즉 J.S. Mill에 있어, Ricardo와 父親 James Mill의 壓力에 못이겨 할 수 없이 使用해왔던 「投下勞動量」의 概念을 서서히 「實質費用」概念으로 代替해 나가는 徵候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實로 重大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리하여 J.S. Mill의 價值論史에 있어서의 位置는, 「投下勞動量」을 「價格」으로 看做했던 Ricardo와 「投下勞動量」을 「實質費用」으로 看做했던 Marshall의 中間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24. 이리하여 J.S. Mill에 있어서도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適用되는 第2部 價值論 즉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이 成立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 利潤은 正常利潤 즉 「通常利潤」「最低利潤率」뿐이며, 超過利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다. J.S. Mill은 Ricardo의 投下勞動價值論을 擴大하고 있다는 것도 沒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Ricardo가 「生産物이 市場에 運搬되는 時間」과 「利潤이 抑制되는 時間」等の 概念을 登場시켜 投下勞動價值論을 若干 混亂狀態에 빠뜨려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J.S. Mill은 「投下勞動量」의 概念을 「넓은 意味로」(for the sake of generality in its expression) 使用해서 「一種의 追加費用」(a kind of additional outlay)이라는 것까지도 包含시키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그리하여 J.S. Mill에 의하면, 「投下勞動量」이라는 「生産만에 投下되는 勞動量」만이 아니라 「生産 및 商品을 市場에까지 運搬하는데 投下되는 全

(42) *Ibid.*, p. 460.(43) *Ibid.*, p. 407.(44) *Ibid.*, pp. 463-465.

投下勞動量』(total quantity of labour necessary to manufacture them and bring them to market)이라고 擴大解釋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⁵⁾ 그리고 毛布와 葡萄酒를 生産하는데 同一勞動量이 投下되었다고 하더라도, 葡萄酒가 所望스러운 品質이 되기 위해서는 5年을 더 所要했다고 한다면 「複利로 計算한 5年間の 利潤」(five years' profit accumulated at compounded interest)만큼 毛布보다 더 高價로 販賣해야 된다는 것이다.⁽⁴⁶⁾ 즉 여기서는 葡萄酒를 即刻 販賣해서 利潤을 消費하는 대신 葡萄酒를 5年間「保管」하면서 利潤消費를 「抑制」하는 것도 「投下勞動量의 一種」이라고 看做되고 있다. 이리하여 J.S. Mill의 第2部 價值論에 있어서, Ricardo가 $C=M$ 이라고 했던 것을 蓄積勞動·減價償却費·原料費는 C 로 하고, 그리고 正常利潤도 3種類로 즉 「制慾에 대한 報酬」로서의 利子, 「危險에 대한 報酬」로서의 保險, 「監督勞動에 대한 報酬」로서의 監督賃金 등으로 整理하고 있다. 勿論 第2部 價值論에 서는 超過利潤은 發生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注意해 두어야 할 事項은 J.S. Mill은 運搬, 制慾, 危險, 監督勞動 等도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投下勞動量의 一種」으로서 取扱하고 있으며, 따라서 利子, 保險料, 監督賃金 等 正常利潤을 「生産費로서의 利潤」으로 取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J.S. Mill에 있어서도 第2部 價值論 즉 同一 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의 경우에 있어 「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에 관한 理論展開라는 不必要한 蛇足이 Ricardo의 傳統에 따라 붙어 있다는 것도 添記해 두기로 하자.

25. ③ 다음에 J.S. Mill의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에 관해서 言及해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보다 많이 生産하려면 보다 커다란 費用이 든다」(if more is wanted, it must be produced at greater cost)고 되고 있다.⁽⁴⁷⁾ 즉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作用하는 경우이다. J.S. Mill도 이 第1部 價值論을 Ricardo의 理論 路線에 따라서 展開하고 있다(圖-3(2) 參照). 이리하여 J.S. Mill은 또 「價値는 最大 費用에 의해서 決定된다」(permanent value is determined by the greatest cost)는 命題를 確立시켜놓고 있다.⁽⁴⁸⁾ J.S. Mill은 또 the greatest cost라는 用語대신에 the greatest expense라는 用語도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⁹⁾

그런데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을 展開하는데 있어, Ricardo의 경우와 할가치 다른 것은, Ricardo의 경우에 있어서는, 規定에 있어서는, 最大投

(45) *Ibid.*, p. 459.

(46) *Ibid.*, p. 463.

(47) *Ibid.*, p. 455.

(48) *Ibid.*, p. 569.

(49) *Ibid.*, p. 471.

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이 農業生産物의 경우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物의 경우에도 適用된다고 해 놓고서도([10] 參照), 사실에 있어서는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을 工業生産物의 경우에는 赤裸裸하게 適用시키지 않고 주로 農業生産物(穀物生産)의 경우에만 適用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J.S. Mill은 ㉑ 農業生産物의 경우 뿐만 아니라 ㉒ 赤裸裸하게 明示的으로 工業生産物의 경우에도 適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6. 우선 ㉑ 農業生産物(穀物生産)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만약 生産物 가운데에서 가장 不利한 狀態(the most unfavourable circumstances)에서 生産된 部分이 그 生産費에 相當하는 價値를 갖는다고 한다면, 보다 有利한 條件(more favourable circumstances)에서 生産된 部分도 同一의 價値로 販賣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生産費의 價値以上の 價値(a value more than proportioned to their cost of production)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生産物의 所有者는 「하나의 特權(a privilege)을 갖게 되며, 그들은 「通常利潤以上」(more than ordinary profit)을 發生시키는 價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超過利潤은 獨占利潤(monopoly profit)의 性質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⁵⁰⁾ 「商品全體의 一般的 價値(the general value) (즉 「最大費用」一筆者)를 決定하는 土地 (즉 最劣等耕作地一筆者) 보다 肥沃한 土地라는 自然的 優秀性(a natural agent of peculiar quality)를 所有하는 者는…… 그 土地의 使用者로부터 超過利潤(extra gain)을 地代의 形態로서 取得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즉 「地代는 土地에 使用되는 資本의 相異한 部分에서 發生하는 不均等收入의 差異」(the difference between unequal returns to different parts of the capital on the soil)에서 發生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시 한번 換言하면, 同一資本量이 「最惡의 土地」(the worst soil) 또는 「最多費用耕作法」(the most expensive method of cultivation) 以外の 경우에 使用될 때 發生하게 된다는 것이다.⁽⁵¹⁾ 이것은 Ricardo의 地代論을 더욱 明示化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7. ㉒ 그런데 J.S. Mill은 超過利潤이,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發生된다고 다음과 같이 闡明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地代에 類似한 超過利潤(extra profit analogous to rent)은 보통 생각되는 以上으로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發生된다. 이를테면 生産費가 적게 드는 工程을 使用할 수 있는 特許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만약 그 生産物의 價値가 從來의 工程을 維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費用에 의해서 決定된다면, 特許權者는 그 工程이 從來의 工程을 하는 사람의 것보다 優越한 만큼의 超過利潤(extra profit equal to the advantage which his process possesses over theirs)을 獲得하게 될 것이다. 이 超過利

(50) *Ibid.*, p. 471.

(51) *Ibid.*, p. 472.

潤은 本質的으로 地代와 같다. (this extra profit is essentially similar to rent)」⁽⁵²⁾

以上の 引用文章을 통해서 J.S. Mill이 Ricardo의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을 農業生産物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物의 경우에 있어서도 明示的으로 赤裸裸하게 適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Ricardo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은 「低比率」企業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은 「高比率」企業보다 賃金上昇時에 있어서의 價格下落幅이 더 크다는 式으로 展開된 工業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理論(圖-5)를 Ricardo보다 훨씬 더 正確하게 展開해 놓았다는 것을 特記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Ricardo가 <圖-5>의 OP_0 , OP_1 , OP_2 를 「價格」이라고 稱하고 있는 데 대해서, J.S. Mill은 明白히 그리고 正確하게도 「費用」이라고 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J.S. Mill의 價值論은 Ricardo의 價值論보다 顯著하게 前進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8. 그런데 J.S. Mill은 이 超過利潤은 生産者들의 「事業에 대한 優秀한 才能」(superior talents for business) 또는 「優秀한 經營管理」(superior business arrangement)에 起因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他企業들이 「同一種類」(very much of a similar kind)에 속하고 있다면, 利益은 價格下落을 통해서 消費者에게 轉嫁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⁵³⁾

그런데 여기서 J.S. Mill은 다음과 같은 極히 注意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決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商品을 高價格에 低廉한 費用으로(at a lower cost while its value is determined by a higher) 販賣한다면 그 사람만이 超過利潤(extra profit)을 確保할수 가 있다.」(傍點筆者)⁽⁵⁴⁾

여기서 ㉑ 첫째로 注意해야 할 事項은 J.S. Mill이 Ricardo와 그의 父親 James Mill의 壓力으로부터 벗어나 「投下勞動量」이라는 概念 대신에 「費用」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다는 것이다. 즉 J.S. Mill은 Ricardo가 「價格」으로 잘못 取扱해 오던 「投下勞動量」을 「實質費用」으로 올바르게 整理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 點에 있어서도 J.S. Mill의 價值論은 Ricardo의 價值論과 Marshall의 價值論의 中間位置에 定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㉒ J.S. Mill의 工業生産物에 適用된 相反된 2個價值理論을 據點으로 해서 Marshall이 後日 短期均衡理論과 長期均衡理論을 展開했구나 하는 것을 感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도 J.S. Mill의 價格理論은 Ricardo의 價格理論과 Marshall의 價格理論과의 中間

(52) *Ibid.*, p. 476.

(53) *Ibid.*, p. 476.

(54) *Ibid.*, p. 476.

點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29. J.S. Mill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問題삼아 보기로 한다. 「이 超過利潤은 本質적으로 地代와 類似하며, 往往 또 사실 地代의 形態를 取하며, 그 特許權者는 年年 支拂을 받기 위해서 他生産者들에게 그 特權의 使用을 許容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allowing to other producers the use of his privilege, in consideration of an annual payment) ⁽⁵⁵⁾

여기서 우리는 近代經濟學에 共通된 一大錯誤의 根源 즉 利子와 利潤을 同一視하려는 (利子=利潤) 思想의 始發點을 發見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相對적으로 優秀한 生産手段의 「所有者」는 그 生産手段을 「勞動者의 一種」 즉 正常利潤만 받는 「生産者(資本家)」에게 「貸與」해 줌으로써 自己 스스로가 「生産者(資本家)」가 되어서 生産을 해서 벌 수 있는 超過利潤을 利子 또는 地代의 形態로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利子=利潤=地代」의 三位一體의 關係가 J.S. Mill에 있어 成立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理論은 그 後 Böhm-Bawerk · Jevons · Clark等을 거쳐 新古典派理論의 剩餘價值論의 中心을 形成하게 되어 最近의 兩케임브리저사이의 資本論爭 兼 剩餘價值論爭에 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고자 한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取扱하기로 한다.

30. J.S. Mill은 超過利潤을 發生시키는 原因으로서, 前記한 바와 같이, 「事業에 관한 優秀한 才能」과 「優秀한 經營管理」의 두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보다 더 決定的인 原因으로서 「大規模生産」을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重要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J.S. Mill에 의하면, 「大規模生産」(production on a large scale)과 「小規模生産」(production on a small scale)의 두가지가 있는데, 「大規模生産」은 「小規模生産」보다 「훨씬 效率的」(more efficient)이라고 하고 있다. ⁽⁵⁶⁾ 「同一産業을 大規模生産과 小規模生産이 할 때에는 大規模生産이 小規模生産보다 廉賣(undersell) 할 수 있는 最大有利點(greatest advantage)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⁵⁷⁾ 그런데 그에 의하면 「大規模生産」은 高價의 機械를 必要로 하는데, 「高價의 機械는 大資本을 必要로 한다」(expensive machinery supposes a large capital)고 말하고 있다. ⁽⁵⁸⁾ 그리고 「大規模生産」의 「廉賣力」(the power of underselling)은 「絶對的生産量增加」(the absolute increase of produce)보다도 「그 費用에 대한 比率의 增加」(an increased proportion to the expenses) 즉, 「實質費用의 減縮」에 起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⁵⁹⁾ 우리는

(55) *Ibid.*, p.

(56) *Ibid.*, p. 132.

(57) *Ibid.*, p. 134.

(58) *Ibid.*, p. 135.

(59) *Ibid.*, p. 135.

J.S. Mill의 이러한 理論展開는 Ricardo의 機械에 관한 理論은 물론 Marx의 相對的 剩餘價值論까지도 克服해 낸 剩餘價值論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大書特筆해 두고자 한다. 上記引用文章에서 機械는 單純한 生産量増産에 의한 利潤增加보다도 「實質費用節減에 의한 利潤率上昇」을 가져오게 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J.S. Mill은 「投下勞動量」을 「價格」으로서가 아니라 「實質費用」으로 取扱하고 있다. Dobb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主要한 論點에 있어, Mill이 해 놓은 일은 Ricardo에 대해서 보다 Marshall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價值論에 관한 限, 그는 Ricardo를 繼承해서 發展시켰던 것과는 正反對로, 本質的으로 그는 Ricardo가 Adam Smith에 反對해 왔던 데 대해서, 그는 Adam Smith의 立場을 取했다.」 「Schumpeter는 Smith-Mill-Marshall의 라인에 관해서 言及하고, J.S. Mill을 Ricardo學派로부터 除外해 버리고 있는데, 그 理由로서 그의 『經濟學原理』(1948)가 이미 Ricardo派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⁶⁰⁾ 참으로 正鵠을 찌르는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obb는 J.S. Mill이 Ricardo派가 아니라는 理由로서, J.S. Mill이 到達한 結論은 「生産費說」(cost of production theory)이며, 이것은 本質的으로 Adam Smith의 「構成要素合成論」(adding-up-of-components theory) 즉 構成價值論이라고 말하고 있는데,⁽⁶¹⁾ 이 모두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이 말들은 J.S. Mill의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더 正確하게 말하면 「最大費用理論」)에게만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第2部 價值論 즉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에 있어서는 그대로 適用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J.S. Mill의 學說史的 位置가 Ricardo와 Marshall의 中間點에 定着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지 않는가.

J.S. Mill이 「機械」가 「實質費用」을 「節減」함으로써 「利潤率」을 「上昇」시킨다는 理論을 처음으로 明示的으로 赤裸裸하게 闡明해 놓은 功績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一步前進하면 Marshall의 「準地代」概念이 發生된다. (그런데 J.S. Mill의 이 커다란 功績이 Schumpeter에 의해서는 물론 Blaug에 의해서도 指摘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딱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31. 그리고 다음에 J.S. Mill은 「大規模生産은 大資本을 必要로 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注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Ricardo時代에 있어서는 工業生産力이 아직 微弱한 狀態에 있었으며, 大同小異한 小資本・小規模生産이 支配하던 完全競爭

(60) M. Dobb, *op. cit.*, p. 122.

(61) *Ibid.*, p. 122.

時代이며, 前記한 바와 같이, 社會的으로 收穫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이 適用되고 따라서 또 第2部 價值論 各個別投下勞動量同一論이 成立됨으로써 市場 供給曲線이 X軸에 平行이 되는 狀態가 成立될 수 있었다(圖-4 參照). 그러나 J.S. Mill의 時代에 있어서는 工業生産力이 發達함으로써 大資本·中小資本이 併存하게 됨으로써 大規模生産·小規模生産도 併存하게 되는 不完全競爭이 展開됨으로써, 社會的으로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成立되고 市場 供給曲線이 「工業에 있어서도」 右上形態를 取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圖-3(2) 參照). 이리하여 第1部 價值論 즉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의 比重은 Ricardo에 있어서 보다 J.S. Mill에 있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Ricardo의 第1部價值論과 J.S. Mill의 第1部價值論의 差異에 있어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程度의 差異가 背景에 있었다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에 관해서는 Blaug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限界費用의 原理는 一般化되어 農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適用되고 있다. <地代에 類似한 超過利潤>은 商品生産의 경우 發生하는 優越의 差에 대해서 支拂되는 價格이며, 商品의 生産費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⁶²⁾ J.S. Mill은 다음과 같이 明言하고 있다. 「地代는 農業生産物의 價値를 決定하는 生産費가 아니다.」⁽⁶³⁾ 물론 超過利潤도 工業生産物의 生産費가 될 수 없다. 이리하여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地代發生의 根據로서의 「土地의 肥沃度」가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超過利潤發生의 根據로서의 「大規模生産」으로 轉換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그런데 J.S. Mill에 있어서도 Marx가 闡明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搾取理論이 展開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通俗的 見解에 의하면, 事業의 利潤은 價格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하고 있다. 生産者 또는 商人은 그 商品을 實質費用以上으로 販賣해서 (by selling his commodity for more than it costs him) 利潤을 獲得한다. 利潤은 完全히 購買와 販賣의 結果(profit is a consequence of purchase and sale)라는 것이다. 商品의 生産者가 利潤을 獲得할 수 있는 것은 그 商品에 대한 購買者가 있기 때문이다. 商品의 需要·顧客·市場이야 말로 資本家의 利得의 源泉이다(demand-customers-a market for the commodity are the cause of the gains of capitalists). 資本家가 그 商品을 販賣함으로써 資本을 回收하고 또 增加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社會의 經濟組織의 表面을 본 見解에 지나지

(62) M. Blaug, *Ricardian Economics*, 1958, p. 223.

(63) J.S. Mill, *op. cit.*, p. 472.

않는다.」⁽⁶⁴⁾ 以上の 말은 Marx가 主張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主張이라는 것을 即刻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Marx와 꼭 같이 支配勞動價值論・不等交換理論에 立脚한 剩餘價值論(「讓渡에 의한 利潤」理論)을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S. Mill은 超過利潤의 發生原因과 本質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生産者가 그 代價로서 받는 돈은 利潤獲得의 源泉(the cause of his having a profit)이 아니고, 다만 利潤을 獲得하는 方法(the mode in which his profit is paid to him)이다.」⁽⁶⁵⁾ 「利潤의 發生原因은 勞動이 勞動의 維持보다 더 많은 것을 生産하는 데에서 發生한다.」(the cause of profit is that labour produces more than is required for its support)⁽⁶⁶⁾

여기서 J.S. Mill의 剩餘價值論이 Marx의 剩餘價值論과 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剩餘價值는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勞動者」에 의해서 「生産」되며 「資本家」에 의해서 搾取된다는 것이다.

剩餘價值 = 勞動生産力의 價值 - 賃金

이것을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을 適用시켜 變形시켜 놓은 것이 384에서 본 Marx의 定式 剩餘價值 = 勞動日 - 必要勞動時間이다.

以上の 說明만에 의해서 본다면, J.S. Mill은 支配勞動價值論・不等價交換理論에 의한 超過利潤本質論 또는 流通過程利潤發生理論을 排擊하고 Marx式의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한 生産過程 利潤發生理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Marx야 말로 J.S. Mill의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한 超過利潤發生理論 즉 「流通過程 $W' - G'$ 」에서 「生産者」와 「消費者」사이에서 超過利潤은 發生되는 것이 아니고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서 「勞動者」에 의해서 超過利潤은 「生産」되어서 「資本家」에 의해서 實物形態로 搾取당한다는 理論을 繼承發展시켰다고 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Marx는 Ricardo의 弟子가 아니라 J.S. Mill의 弟子라고 우리는 主張하고자 한다. Ricardo는 $C + V + M$ 을 完成하지 못했지만 J.S. Mill은 $C + V + M$ 을 完成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闡明해 놓은 바가 있다.

33.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J.S. Mill의 剩餘價值論을 整理해 놓기로 하자.

① 正常利潤 = 最低利潤率은 制慾勞動의 代價로서의 利子, 危險勞動의 代價로서의 保險, 管理勞動의 代價로서의 監督賃金 등의 合計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J.S. Mill은 「生産費로서의 利潤」을 主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J.S. Mill은 이 경우가 適用될 수 있는 것은 收

(64) *Ibid.*, p. 416.

(65) *Ibid.*, p. 415.

(66) *Ibid.*, p. 416.

獲不變의 法則(費用不變의 法則)이 適用되는 同一小規模 工業의 生産完全競爭이 行해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다.

② 그런데 收穫遞減의 法則(費用遞增의 法則)이 適用되는 「大規模生産」과 「小規模生産」이 併存하는 不完全 競爭狀態의 工業生産과 農業生産의 경우는 超過利潤이 發生되며 (農業의 경우는 地代로 轉換되지만) 超過利潤은 生産費 즉 投下勞動量이 아니라고 明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에 의하면 다음 定式이 成立된다고 하고 있다.

超過利潤=最大投下勞動量(最大費用)-一個別投下勞動量(個別費用) (A)

=勞動生産力의 價値-賃金 (B)

(A)는 費用遞增의 法則으로부터 誘導되고 있으며 (B)는 收穫遞減의 法則으로부터 誘導되고 있으므로 그 內容이 一致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定式(A)는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理論이 아니라 支配勞動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이 된다고 言及해 놓은 바가 있다. 그것을 銳敏한 Marx도 洞察하고 投下勞動價値論을 完成시키기 위해서는 Ricardo式의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勞動價値論)에 의해서도 不可能하고, J.S. Mill式의 「同一」各個別 投下勞動價値論에 의해서도 不可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考案해 낸 것이 바로 「平均」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理論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J.S. Mill의 定式 (A), (B)는 Marx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改變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384, 389 參照).

剩餘價値=一個別投下勞動量-不變資本의 價値(勞動日)

=必要勞動時間(賃金)

(「資本家」에 의한 「勞動者」의 搾取)

特別剩餘價値=平均投下勞動量-一個別投下勞動量(「資本家」에 의한 「資本家」의 搾取)

J.S. Mill의 定式(A), (B)의 「抽象性」(不完全性)이 Marshall에 의해서 어떻게 「具體化」(完全化)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자.

J.S. Mill은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資本家の 利得은 2個의 要素에 의해서 決定된다. 하나는 勞動生産力(the productive power of labour)이고 또 하나는 勞動者가 차지하는 部分 즉 賃金」이라는 것이다.⁽⁶⁷⁾ 이 말은 前記한 J.S. Mill의 定式(B)를 表明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34. 그런데 또 J.S. Mill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Ricardo式 分解價値論·控除利潤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Ricardo 및 其他學者가 主張하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즉 利潤率은 賃金如何에 따라서 決定되며, 賃金이 下落하면 利潤率이 上昇

(67) *Ibid.*, p. 419.

하고, 賃金이 上昇하면 利潤率(率)이 低下된다.」⁽⁶⁸⁾ 但 J.S. Mill은 勞動者가 받는 「賃金」(wages)과 資本家가 勞動者에게 支拂하는 「勞動費」(the cost of labour)를 區別할 必要가 있다고 極力 主張하고 있는데, 兩者를 區別할 必要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賃金은 ① 勞動能率(the efficiency of labour) ② 實質賃金 ③ 實質賃金を 形成하는 商品을 生産하는데 또는 獲得하는데 必要한 費用의 大小(the greater or less cost at which the articles composing that real reward can be produced or purchased) 등 「3個의 變數」(three variables)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利潤率을 變動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⁶⁹⁾ ③ 「實質賃金を 形成하는 商品」을 「穀物」이라고 하면 穀物價格上昇이 利潤率低下의 原因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J.S. Mill은 Ricardo와 같이 強調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Ricardo時代에 있어서는 穀物價格이 類例없이 高騰한 時代이었지만, 穀物法은 1842年 廢棄되어, J.S. Mill이 살고 있던 時代에 있어서는 穀物事情이 根本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勘案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35. 그러나 J.S. Mill도 「利潤은 그 最小限에 達하려는 傾向」(the tendency of profits to a minimum)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J.S. Mi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資本이 現在의 比率로써 增加를 繼續한다면, 그 사이에 利潤率을 增加시키는 어떠한 事情이 發生되지 않는다고 하면, 利潤은 低下되고 最低率에 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⁷⁰⁾

V. Jevons·Walras의 剩餘價值論

36. 다음에는 Jevons·Walras의 剩餘價值論을 順序上 簡單히 檢討해 보기로 한다.

Jevons가 우리의 理論體系에 있어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闡明해 놓은 바 있다. 우리는 84에서 Jevons의 「効用의 計算學은 人間普通의 欲望을 最小의 勞動費用에 의해서 充足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文章을 引用하면서, Jevons야말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을 明示의인 形態로서 提示한 最初의 한사람이라고 까지 言明해 둔 바가 있다. Jevons야말로

經濟剩餘—効用(効用勞動量)—投下勞動量(勞動費用)

이라는 經濟剩餘의 本質을 아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었던 最初의 한사람(Malthus와 같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勞動費用」이라는 概念을 最初로 使用한 것은 大書特筆할 事

(68) *Ibid.*, p. 419.

(69) *Ibid.*, p. 420.

(70) *Ibid.*, p.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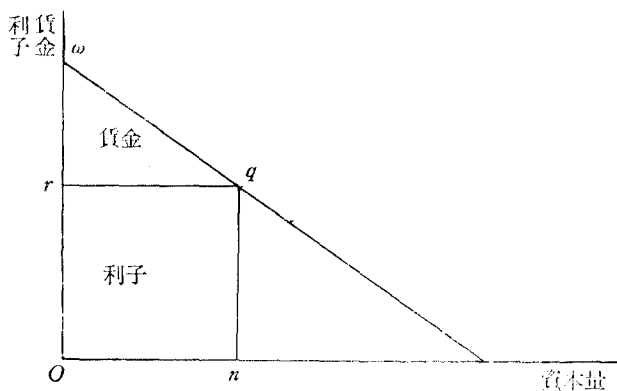
件이 있다고 우리는主張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快樂과 苦痛이 計算」이라는 用語와 「苦痛의 最小費用」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55參照). 바로 이 點에서 우리는 Jevons의 Walras에 대한 差異點과 또 그에 대한 優越性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重要한 點을 指摘한 經濟學者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Jevons가 確立해 놓은 經濟剩餘에 관한 定式은 그것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될 때, 바로 超過利潤(剩餘價値)의 本質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도 368에서 우리는 言及해 놓은 바 있다. 즉 Jevons야말로 剩餘價値의 本質을 把握할 수 있었던 最初의 한 사람이며, Marshall은 그것을 「具體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37. 그런데 한편 Jevons에 있어서도 J.S. Mill에 있어 나타나는 「利子=利潤=地代」의 三位一體에 관한 理論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絶對적으로 沒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한다.

우선 Jevons의 利子에 관한 理論을 보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資本의 借用者(employers of capital)는 資本을 항상 最小利子率(the lowest prevailing rate)로 借用(get)한다. 그리고 他人들이 必要로 하지 않는 資本을 항상 借用(borrow)한다. 이것을 그림에 의해서 說明하면 X軸의 On을 生産部門에 있어 一定量의 勞働者數(a fixed number of labourers)를 雇傭하고 있는 資本量이라고 한다면, Owqn의 面積은 全生産物이 된다. 이리하여 資本의 利子は Orqn의 面積이 되고, 殘餘의 生産物 rwq는 貨金이 된다.」(圖-9)⁽⁷¹⁾

以上の Jevons의 資本理論・利子理論의 特徵을 指摘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勞働者가 資本家에 대해서 「雇傭關係」에 있지를 않고 「貸借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圖-9〉

(71) W.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4th ed., 1911, p. 258.

즉 勞働者는 資本家에 의해서 「雇傭」되어서 資本家를 위해서 「利潤」을 獲得시켜 주지 않고, 勞働者는 資本家로부터 資本家の 所有物인 「資本」 즉 生産手段을 「借用」해서 生産해서 「借用料」 즉 「利子」를 支拂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따라서 Jevons에 있어서는 資本家와 勞働者の 「貸借關係」에서 發生되는 「利子」와 資本家와 勞働者の 「雇用關係」에서 發生되는 「利潤」이 同一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것은 Jevons에 있어서는 實物經濟 $W-W'$ 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이 同一視되고 있는 데에서 發生되는 誤謬라고 볼 수 있으며, 「資本」을 「準土地」로 「資本家」를 「準地主」로 取扱하고 資本家와 勞働者の 關係를 封建的 生産關係 (貸借關係)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이리하여 Jevons에 있어 資本의 實物的인 限界生産力은 「實物利子」도 되고 또 이것을 貨幣額으로 表示하면 「貨幣利潤」도 되게끔 되고 있다. Jevons가 말한 the lowest prevailing rate라는 것이 바로 資本의 限界生産力을 指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利子は 資本의 最後의 増量の 利益(the advantage of the last increment of capital)에 의해서 決定된다.」⁽⁷²⁾ 그리고 Jevons가 「利子」와 「利潤」을 同一視했다는 證據를 表示하면 그의 다음의 文章을 引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利潤率, 더 正確하게 表現하면 利子率」(the rate of profit, more strictly speaking, the rate of interest)⁽⁷³⁾

⑤ 마지막으로 Jevons의 「資本의 限界生産力이 利子 또는 利潤이다」라는 理論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밝혀보기로 하자. 316에 있어 우리가 이미 闡明해 놓은 바와 같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資本」 즉 生産手段의 限界價值生産力은 그 生産手段의 「上限價格」이 되며, 절대적으로 「利子」도 「利潤」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資本」(生産手段)의 實物的 限界生産力이 「利子」가 되는 것은, 實物經濟 $W-W'$ 時代 즉 「實物資本」(生産手段)을 所有하는 사람이 「實物資本」(生産手段)을 어떤 사람에게 (Jevons가 「勞働者」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貸與」해 주고 生産을 시켜서,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고 있다는 假定下에서, 「實物形態의 利子」 즉 「貨幣利子」가 아니고 「實物利子」를 限界內生産者 (「勞働者」)로부터 取得한다는 理論인데, 이것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까지 그대로 延長시켜 「實物資本」(生産手段)의 限界生産力으로서의 「實物利子」는 「實物資本」(生産手段)의 限界生産力으로서의 「貨幣利潤」이 된다는 理論이다. 여기서 實物經濟 $W-W'$ 에서 成立되고 있는 「實物資本」(生産手段)의 所有者 兼 「貸與者」는 資本主

(72) *Ibid.*, p. 256.

(73) *Ibid.*, p. 253.

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下에서는 「資本家」로, 그리고 實物經濟 $W-W'$ 에 下 있어서의 「實物資本」(生産手段)의 「借主」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下에서는 「勞動者」로, 理論이 展開됨으로써 「貸借關係=雇傭關係」라고 되고 있다. 이것은 實物經濟 $W-W'$ 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의 差異를 Jevons가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weezy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商品生産一般과 資本主義를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重要的 事이다.」⁽⁷⁴⁾ 이하에 「利子=利潤」의 定式이 成立되는 背後에는 「生産手段의 貸主=資本家」「生産手段의 借主=勞動者」「貸借關係=雇傭關係」라는 錯覺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Jevons는 「超過利潤」을 「利子」로서 取扱하고 說明하고 있으면서도, 正常利潤은 「監督을 위한 賃金」(wages of superintendence) 「危險에 대한 保險」(insurance against risk)의 2種類로 區分하고 있다.⁽⁷⁵⁾

38. 이하에 Jevons에 있어서의 「利子=利潤」에 관한 理論도, 窮極的으로는, 404·405에 있어 우리가 본 Böhm-Bawerk의 「利子=利潤」에 관한 理論과 一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다른 點이 있다고 한다면, Böhm-Bawerk에 있어서의 「貸借關係」와 「雇傭關係」가 同一市場에 있어 「併存」하는 二元的 構造를 形成하고 있었는 데 대해서, Jevons에 있어서의 「貸借關係」=「雇傭關係」가 되고 있는 一元的 構造를 形成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다음에는 Jevons의 地代理論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圖-10).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地代理論을 그림으로 表示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X軸에는 勞動量을 表示하고 曲線 apc가 生産性(the rate of production)의 變動을 表示한다고 하면, 生産物의 分量은 曲線의 面積에 의해서 測定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 勞動이 om量 投下되었다고 하면 生産物은 apmO가 된다.」⁽⁷⁶⁾ 「勞動量 Om은 Orpm만큼의 報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rap는 剩餘生産物이 되고, 만약 그가 土地의 所有者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地代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⁷⁷⁾ 이 Jevons의 地代理論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여기서는 農業資本家와 勞動者, 그리고 地主 等 3階級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假定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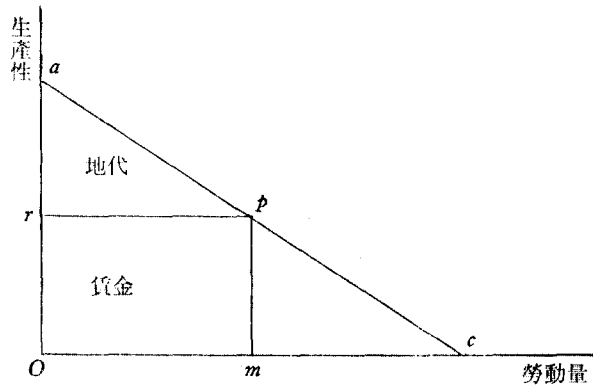
② 賃金은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되고 있다. 물론 收穫遞減의 法

(74)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 56.

(75) W.S. Jevons, *op. cit.*, p. 270.

(76) *Ibid.*, p. 219.

(77) *Ibid.*, p.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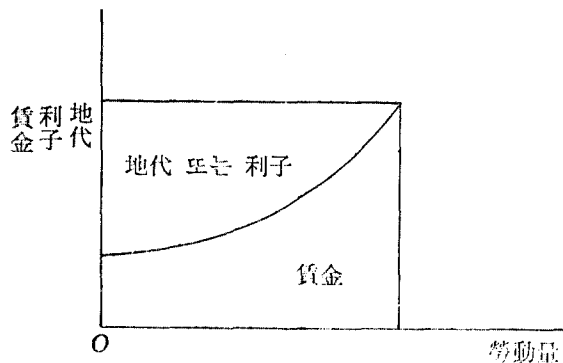


〈圖-10〉

則의 作用이 前提되고 있다.

③ 農業資本家は 正常利潤만 取得하고 超過利潤은 地主에게 地代의 形態로서 歸屬되게 된다는 것이다.

④ 만약 〈圖-9〉에 있어 「貸借關係」가 表示되지 않고 「雇傭關係」가 表示되고 있다고 하면, X軸이 資本量을 一定으로 하는 雇傭量을 表示한다고 하면, qn 은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으로서의 賃金을 表示하게 되고 따라서 $Orqn$ 은 賃金總額, rwq 는 超過利潤을 表示하게 되며, 〈圖-9〉와 〈圖-10〉은 結局 同一理論을 表示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가지 差異點이 있다고 하면 〈圖-9〉의 rwq 가 「工業超過利潤」을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圖-10〉의 rap 는 「農業超過利潤」=「地代」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圖-9〉 〈圖-10〉은 Ricardo의 第1部價值論 最大投下勞動價值論, J.S. Mill의 第1部價值論 最大投下勞動價值論(〈圖-11〉)과 완전히 一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收穫遞減의 法則은 費用遞增의 法則과 同一한 것이기 때문이다.



〈圖-11〉

이렇게 보면 Jevon도 Ricardo·J.S. Mill의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을主張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줄 안다. 더구나 限界革命家 Jevons가 「勞動費用」이라는 「根元的 必然」의 하나를 明示的으로 表現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Jevons야말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建設者라고 할 수가 있을 줄 안다. 다만 한가지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眞實한 創設者 Malthus에 比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Malthus는 2個의 「根元的 必然」인 効用과 投下勞動을 相互媒介시킴으로써 不等價交換理論을 展開해 놓았는 데 대해서 Jevons는 그것까지는 成就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0. 다음에는 Jevons와 같이 限界革命指導者の 한사람이었던 Walras의 剩餘價値論을 考察해 보기로 하자.

Walras는 生産의 3要素는 「土地資本」(landed capital), 「人的資本」(personal capital), 「動産資本」(capital goods proper)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土地·人(勞動)·資本(狹義의) 등의 生産要素의 結合에 의해서 生産物이 生産된다고 하고 있다.⁽⁷⁸⁾ 그리고 그는 또 土地의 肥沃度, 勞動者의 勞動, 機械道具의 使用 등을 「生産的 用役」(productive services)이라고 하고(「消費的 用役」이라는 것도 Walras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省略하기로 한다), 그 「生産的 用役」에 대한 代價가 地代·賃金·利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Walras도 土地所有者인 地主, 人的 能力의 所有者인 勞動者, 「狹義의 資本」의 所有者인 資本家 등에 의해서 社會는 構成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⁹⁾

그런데 Walras는 이 3階級 以外에 「第4의 사람」(a fourth person)인 「企業者」(entrepreneur)를 登場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企業者와 資本家를 同一視한 것은 英國經濟學의 誤謬」라고 말하고 있다.⁽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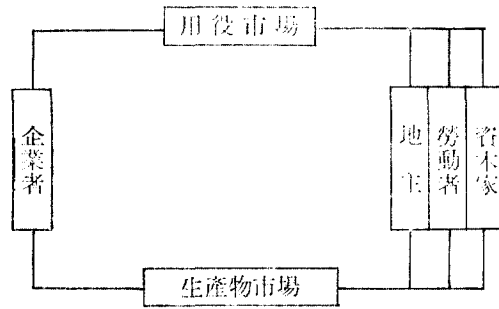
41. Walras는 2個의 相異하는 市場 즉 「用役市場」(services market)과 「生産物市場」(products market)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用役市場」에 있어서는, 地主·勞動者·資本家 등이 各各 「土地用役」(land-services)·「勞動」·「資本用役」(capital-services) 등의 販賣者로서 登場하게 되며, 한편 企業者는 그들 「生産的 用役」의 購買者로서 登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用役市場」에 있어서의 「貨幣」(numéraire)로써 表示된 「土地用役」의 市場價格은 地代, 「貨幣」(numéraire)로써 表示된 「勞動」의 市場價格은 賃金, 「貨幣」(numéraire)로써 表示된 「資本用役」의 市場價格은 利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圖-12〉).⁽⁸¹⁾

(78) L. Walras, *Elements of Pure Economics*, 1954, p. 218.

(79) *Ibid.*, p. 212.

(80) *Ibid.*, p. 222.

(81) *Ibid.*, p. 223.



〈圖-12〉

한편 「生産物市場」에 있어서는 「企業者」는 生産物の 販賣者로서, 그리고 「地主」·「勞動者」·「資本家」는 生産物の 購買者로서 各各 登場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用役市場」에 있어서도 「生産物市場」에 있어서도 各 「生産的 用役」과 各 生産物の 價格은 需要와 供給이 一致되는 點에서 決定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가 注意해야 할 事項은 Walras가 「有効供給이 有効需要보다 크면 企業者는 價格을 下落시킨다」⁽⁸²⁾고 말함으로써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採擇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以上の 前提 위에서 展開해 놓은 것이 우리가 231에 있어 이미 紹介해 놓은 所謂 Walras의 一般均衡理論(Walras自身은 「生産方程式」이라고 하고 있다)이다.

Walra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需要供給의 法則과 生産費의 法則을 誘導해 냈다. 이리하여 나는 有名한 經濟學의 二大法則(two well-known fundamental laws of economics)을 發見해냈다. 나는 生産物價格은 第1의 法則을 基礎로 해서 說明하고, 生産手段價格은 第2의 法則을 基礎로 해서 說明함으로써 이 2個의 法則을 確立하려고 한다.」⁽⁸³⁾ 이렇게 보면 〈圖-12〉와 같은 想定下에서 展開된 一般均衡理論 즉 229의 (C)·231의 (H)(I)(J)은 「二大法則」 즉 「需要와 供給의 法則」과 「生産費의 法則」을 基礎로 해서 構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42. 다음에는 이러한 Walras의 理論에 대한 私見을 披瀝해 보기로 하자.

① 〈圖-12〉는 確實히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rightarrow W \leftarrow \frac{P}{A} \dots P \dots W' \rightarrow G'$ 의 循環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Walras의 理論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rightarrow W \leftarrow \frac{P}{A} \dots P \dots W' \rightarrow G'$ 에 있어서의 核心인 「利潤」概念이 前面에 나타남과 있지 않다는 極히 重要視할 事項이 介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Walra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勞動을 土地·資本과 同列로 取扱해서는 안되고,

(82) *Ibid.*, p. 223.

(83) *Ibid.*, p.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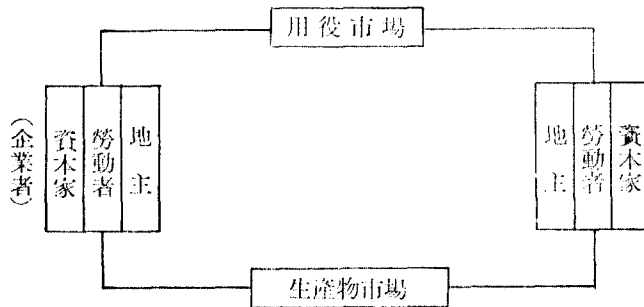
土地用役(地代), 資本用役(利潤)(capital-services[profit])과 同列로 取扱해야 할 것이다.»⁽⁸⁴⁾ 자—그러면 이 Walras의 表現을 우리는 어떻게 解釋해야 될까. 「勞動用役」이 아니라 「勞動」에 대한 代價는 賃金, 「土地用役」에 대한 代價가 地代, 「資本用役」에 대한 代價는 「利潤」이라고 解釋해야 될까. 만약 그렇게 解釋한다면 「利子」는 그러면 어떻게 取扱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미 「資本家」는 「用役市場」에서 「企業者」들에게 「資本用役」을 「利子」를 받고 販賣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Walras에 있어서도 「利子」=「利潤」理論이 成立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Walras가 指摘했던 것과 같이, 「企業者」와 「資本家」를 區別한다면(그에 의하면 英國經濟學은 이 兩者를 區分하지 못하는 誤謬를 犯했다는 것이다), 「利潤」은 「企業者」의 收入이 되어야 하며, 「資本家」의 收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혹시 Walras는, Marx와 같이, 利子を 剩餘價値 즉 超過利潤의 一部로 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러나 Walras는, Marx와는 달리, 利子を 企業의 「費用」으로 明示的으로 表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企業者는 原料를 他企業者로부터 購買하고 地代를 支拂해서 地主로부터 土地를 賃借하고, 賃金を 支拂해서 勞動者의 人的 能力을 賃借하고, 利子を 支拂해서 資本家의 資本을 賃借해서, 最後에 生産의 用役을 原料에 適用해서, 獲得한 生産物을 自身の 計算에 의해서 販賣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 企業者들은 그 生産物 또는 商品을 原料·地代·賃金·利子 等に 支出된 費用보다 高價로 販賣할 때에는 그들은 利潤(profit)을 獲得하고, 反對의 경우에는 損失(loss)을 받게 된다.»⁽⁸⁵⁾ 이 文章에서는, Walras는 企業者가 正常利潤인지 또는 超過利潤인지를 모르는 正體不明의 利潤을 獲得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Walras는 또 利潤을 debt와 credit의 「殘高(balance)」로서도 取扱하고 있다. 하여튼 剩餘價値論의 不在는 Walras의 體系의 아킬레스踵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그런데 Schumpeter를 비롯한 經濟學說史家들이 Walras를 읽어보면 即刻 感知할 수 있는 이 脆弱點을 진짜로 몰라서 그랬는지 또는 알면서도 덮어두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駁論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 그런데 Walras의 體系에 있어서의 「二大法則」의 하나인 「生産費의 法則」(231의 $\sum_{i=1}^n P_i x_i \equiv \sum_{j=1}^r q_j R_j$ 또는 $\sum_{i=1}^n P_i F_i \equiv \sum_{j=1}^r q_j G_j$)이 適用되는 限에 있어, 「利潤은 存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規定되고 있다는 것을 알 必稟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Walras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自由競爭」(free competition) 즉, 完全競爭을 前提하기 때문이 아니라

(84) *Ibid.*, p. 212.(85) *Ibid.*, p. 227.(86) *Ibid.*, p.

것을 우리는 強調하고자 한다. 만약 $\sum_{i=1}^n P_i x_i = \sum_{j=1}^r q_j R_j$ 이 아니라 $\sum_{i=1}^n P_i x_i = \sum_{j=1}^r q_j R_j$ 라고 한다면 몰라도, 즉, $\langle = \rangle$ 이 아니라 $\langle \equiv \rangle$ 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은, Walras의 理論關係에 있어서는 「利潤은 存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取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줄 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이미 몇번 強調해 둔 바와 같이, Walras의 理論 즉 一般均衡理論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需要供給의 法則」과 「生産費의 法則」이라는 「二大法則」 위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理論이 아니고,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理論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2參照).

44. Walras의 理論에 의하면 企業者는 아무런 形態의 收入도 確保하지 못하는 바랍과 몰 말 먹코사는 存在가 되고 있다. 이 무슨 년센스인가. 그런데 Walras 自身은 自己理論의 년센스를 發見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生産의 均衡狀態에 있어서는 企業者는 利潤도 獲得 못하고 損失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企業者가 企業者로서 存在하지 않고, 自己의 또는 他人의 企業속에서 地主·勞動者 또는 資本家로서 存在하게 된다. 그러므로 合理的인 會計를 하려면 스스로 耕作하는 土地의 地主로서의 企業者, 스스로 企業의 經營을 하는 企業者, 事業에 投下한 資本을 所有하는 企業者는 一般的 經費로서, 地代·賃金·利子를 debt에 그리고 또 이것을 credit에 記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方法을 取하면 企業者로서는 利潤도 損失도 없어지게 된다.」(87) 즉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하면, <圖-12>는 <圖-13>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 즉 地主는 自耕地主, 勞動者는 獨立事業家, 資本家도 獨立事業家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企業者」도 「利潤」과 마찬가지로 存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Walras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地主·勞動者·資本家 및 企業者는 土地用役·勞動·資本



<圖-13>

(87) Ibid., pp. 225-226.

用役의 名稱을 갖는 生産的 用役의 어떤 量과 地代·賃金·利子의 名稱을 갖는 生産物의 어떤 量을 交換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狀態에 있어서는 企業者의 介入을 捨象하고 (abstract from entrepreneurs) 單純히 生産的 用役은 生産物과, 生産物은 生産手段과 交換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結局에 있어 生産的 用役과 生産的 用役이 交換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⁸⁸⁾ 여기에 이르러 Walras의 理論體系에 있어 「利潤」의 存在가 根源的으로 認定될 수 없는 것 같이, 「企業者」의 存在도 結局 Walras自身의 手に 의해서 壓殺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에 있어서는 剩餘價値論은 完全無缺하게 無視되고 있다. 그것은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適用되는 理論이 아니고 單純商品生産 $W-G-W'$ 에 適用되어야 할 理論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第1篇 第4章 第2節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에 있어, 「需要供給의 法則」에 의해서 決定되는 均衡價格에 의해서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去來되더라도 「事後的」 不等價交換이 發生됨으로써 交換當事者들이 이것을 意識하든 못하든 流通過程에서 剩餘價値가 發生된다는 理論을 이미 展開해 놓은 바 있다. 그리고 또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에 있어 「費用」이 된다는 것은 「實質費用」이 아니라 「代替費用」이라는 것도 言及해 놓은 바 있다. 이것은 Walras의 一般均衡理論 [229(C)·231(H)(I)(J)]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費의 法則」에 있어서의 「生産費」는 市場에서 成立되는 機械의 費用·原料費·地代·賃金·利子 等 生産手段의 諸價格의 合計를 表示하고 있으므로 生産手段의 購買者인 企業者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投下勞動量」(投下勞動量이 아니라)으로서의 實質費用이 된다는 것을 말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Walras의 「生産費의 法則」은, 學說史的으로 볼 때, Böhm-Bawerk의 「費用의 法則」(62參照)·Schumpeter의 「費用의 法則」(426參照) 等으로 이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5. Walras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1. 自由競爭은 生産費를 極小化시킨다. 2. 自由競爭制度下에서는 生産費와 價格은 一致되며, 各 生産的 用役의 報酬는 生産函數의 偏微分 즉 限界生産力과 같다. 즉 上記 3命題는 純粹經濟學上 가장 重要한 限界生産力理論을 構成하고 있다.」 以上の Walras의 引用文章을 보면 Walras가 生産手段價格理論으로서의 限界生産力理論을 取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限界生産力理論은, 限界効用理論이 地主·勞動者·資本家에 의해서 生産되는 生産物의 需要와 用役의 供給의 原動

(88) *Ibid.*, p. 225.

력이 되는 것 같이, 企業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生産的 用役의 需要와 生産物의 供給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⁸⁹⁾ 以上の Walras의 理論을 解釋해 보면, 生産物의 경우에 있어서는 73의 註(2)가 成立된다는 말이고, 生産手段의 場合に 있어서는 需要曲線은 319의〈圖 2-21〉에 있어서의 需要曲線 DD가 되지만 供給曲線은 165의〈圖 1-22〉에 있어서의 供給曲線 SS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즉 消費財生産도 그리고 生産手段生産도 單純商品生産 $W-G-W'$ 의 前提 위에서 行해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은 生産手段生産에 있어서의 費用曲線이 代替費用曲線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生産手段도 原則적으로 「自家消費」하는데 「自家消費」하는 것보다 有利하게 生産手段으로서 使用할 수 있다면 그것을 生産手段으로서 使用한다는 것이다.

46. Walras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實物形態로서 貨與되는 것(hired in kind)은 土地와 人的 能力뿐이며, 狹義의 資本은 一般적으로 用役市場에 있어 貨幣形態로서 貨與된다(hired in the form of money).」⁽⁹⁰⁾ 여기서 우리는 Walras는, Jevons와는 달리, 「企業者」는 貨幣를 貨與받아 그 貨幣資本으로 生産手段을 「借用」하지 않고 「購買」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實物資本」의 「所有者」로부터 「實物資本」을 「勞動者」가 「借用」해서 限界物의 生産力 만큼의 「實物利子」를 「實物資本」의 「所有者」에게 支拂한다고 생각하는 Jevons의 思考方式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Jevons의 場合に 있어서와 같이, 「實物資本」의 「貸主」를 「資本家」로 「實物資本」의 「借主」를 「勞動者」로, 즉 實物資本의 「貸借關係」를 資本家와 勞動者의 「雇用關係」와 同一視함으로써 「利子=利潤」理論을 誘導해 냈던 것과는 달리, Walras의 場合に 있어서는 「超過利潤의 一部로서의 利子」가, 論理的으로는 誘導될 수 있게끔 되고 있었다.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이, Walras에 있어서는, Jevons의 경우와는 달리, 「利潤」이 登場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企業者」의 경우와 같이, 存在할 수 없게끔 됨으로써 剩餘價值論이 確立될 수가 없었으며, 「貨幣資本의 貸付」로부터 當然히 理論적으로 誘導되어야 할 「貨幣利潤의 一部로서의 貨幣利子」대신에,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生産費로서의 利子」가 誘導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대신 Walras에 있어서는 「利子=利潤」에 관한 理論은 存在하지 않는다.

VI. Marshall·Clark·Marx의 剩餘價值論

47. 그러면 다음에는 英國古典學派 즉 Adam Smith·Ricardo·Malthus·J.S. Mill 등의 價

(89) *Ibid.*, p. 385.

(90) *Ibid.*, p. 270.

價值論과 剩餘價值論을 理論的으로 統合하는 데 완전히 成功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偉大한 Marshall의 價值論·剩餘價值論을 古典學派의 價值論·剩餘價值論과 對照比較하면서 說明해 보기로 하자.

① 우선 Marshall은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있다. 「生産費原理과 限界効用原理은 一切를 支配하는 構成部分이다. 그 各各은 各기(缺)의 한쪽 날(刃)에 比할 수 있다」(295 參照). 즉 Marshall은 「根元的 必然」인 効用(効用勞動量)과 投下勞動(이것을 Marshall은 「生産費」와 同一視했지만 兩者는 儼然히 區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은 交換에 있어서도 必然的으로 交換基準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② Marshall은 Ricardo, J.S. Mill 등이 내걸고 있던 「投下勞動」을 「實質費用」으로 轉換시켜 놓았다(297·351 參照). J.S. Mill이 이에 관한 重要的 理論的 示唆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言及할 바 있다. 하여튼 Marshall에 의한 「投下勞動」의 實質費用으로의 轉換은 偉大한 功獻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Einstein의 相對性原理의 發見에도 比할 수 있는 이 Marshall의 偉大한 功獻을 단 한사람의 經濟學者도 正確하게 理解하고 評價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참을 수 없는 憤怒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Schumpeter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shall은 實質費用을 導入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352 參照). 「Jevons·Menger·Walras 등으로부터의 Marshall의 乖離는 無視될 수 있다」(352 參照). 「代替費用」만을 「費用」으로 認定하는 Schumpeter의 立場으로부터는 이러한 立言만이 나올 수가 없었겠지만, 天才 Schumpeter도 「實質費用」을 認定하지 못한 Jevons·Menger·Walras 등이 그 必然的 結果로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서 成立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할 수 없었으며, 기껏 物物交換 $W-W'$ 에서 成立되는 相對價格決定理論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서 成立되는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밖에 展開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오직 Marshall 한 사람만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서 成立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는 데 成功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③ 하여튼 Marshall만이 「効用」=「需要價格」과 「實質費用」=「供給價格」의 2個의 概念을 使用해서, 또 288·289·290에 있어 우리가 說明해 놓은 바와 같이,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登場시켰으로써, 完全無缺하게 즉 가장 「具體的인」 形態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서 成立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는 데 成功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왜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相對價格決定理論·前資本主

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밖에 되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第1編에 있어 우리는 이것을 充分히 밝혀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만이 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289에 있어, Marshall의 價格理論이야말로 Marx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관한 理論과 完全히 一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놓은 바 있다. 아니 Marshall이야말로 Marx가 定式化해 놓은 빛나는 그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관한 理論을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에 의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288의 方程式 (36)·290의 方程式 (37)〕

$$\left. \begin{array}{l} P = P(Q) \quad [P'(Q) < 0] \\ K = K(Q) \\ P(Q) = K(Q) \end{array} \right\}$$

에 의해서 修正補完해서 一步前進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Marx以後에 나타난 여러 經濟學者 가운데에서 오직 Marshall만이 Marx의 理論을 創造的으로 發展시켜 놓은 唯一無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斷定을 내리고자 한다. 아니 Marx의 빛나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관한 理論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즉 290의 方程式 (37)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289 參照). 그리하여 우리는 Marx의 直系가 되어야 할 사람은 所謂 「Marx主義經濟學者」 이클테면 Lein, Kantsky 등이 아니고 바로 Marshall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8. ④ 다음에는 Marshall이 어떻게 Adam Smith·Ricardo·J.S. Mill 등의 理論을 自己體系內에 吸收해 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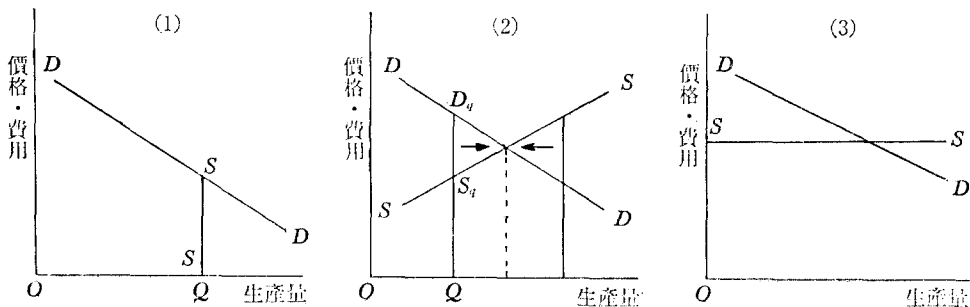
㉑ 우선 Marshall은 前記한 바 있는 Adam Smith의 「獨占價格」概念 그리고 Ricardo에 있어 前面에 나타나고 있지를 알았던 Ricardo의 第3部價值論 즉 限界效用價值論과 Ricardo의 「獨占價格」概念 그리고 Malthus의 「需要的 強度」의 概念(37 參照), 그리고 J.S. Mill에 있어서도 前面에 나타나고 있지를 알았던 J.S. Mill의 第3部價值論 즉 限界效用價值論 그리고 Ricardo의 그것과 비슷한 그의 「獨占價格」概念 등으로부터 「需要價格」概念을 誘導해 냈으며(37參照), 그리하여 價格의 「上限」을 「効用概念」을 통해서 確立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效用」概念은 Ricardo·J.S. Mill 등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效用」概念은 하나의 附錄에 지나지 않았는 데 대해서, 오직 Malthus에 있어서만 「效用概念」이 陽的 存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Marshall은 「需要價格」概念

을 Adam Smith·Malthus 等を 통해서 繼承發展시켜서 確立해 놓았다고 해 두기로 한다.

⑤ 한편 Adam Smith의 「自然價格」概念, Ricardo의 第1部價值論과 第2部價值論 즉 投下勞動價值論 그리고 그의 「自然價格」概念, 그리고 J.S. Mill의 第1部價值論과 第2部價值論 즉 投下勞動價值論(「實質費用」理論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그의 「中心價值」·「最小價值」·「必要價格」等の 概念 等으로부터 「實質費用」=「供給價格」概念을 繼承發展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163參照). 이리하여 Marshall은 價格의 「下限」을 確立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Marshall 以前까지 對立鬭爭해 오던 限界效用價值論과 投下勞動價值論을 價格의 「上限」과 「下限」을 決定하는 「價格과 費用」의 理論으로 辨證法的으로 統合하는 데 完全히 成功했다고 할 수 있다.

⑥ 다음에는 어떻게 統合했는가와 그 方式을 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表現하면 「時間의 相變에서」 즉 實質費用曲線의 時間의 特性에 따라서 즉 生産物總量을 變更시킬 수 있는 時間이 없는 경우, 즉 實質費用曲線 SS가 X軸에 垂直線이 될 때에는 「一時的 均衡」理論이 成立된다고 했고(圖-14) (1)), 勞動手段을 「固定」시켜 놓고 勞動對象을 「可變」으로 해서 生産量이 變動될 때에는 「短期均衡」理論이 成立된다고 했고(圖-14) (2)), 勞動手段을 包含한 全生産手段이 「可變」이 됨으로써 生産量이 變動될 때에는 「長期均衡」理論이 成立된다고(圖-14) (3))하는 3個方式으로 統合整理했다고 할 수 있다. 「一時的 均衡」理論은 Malthus의 理論을 그대로 繼承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344參照), 「短期均衡」理論은 Malthus로부터 右下形態의 需要曲線 DD를 繼承받고 한편 右上形態의 實質費用曲線 SS는 Ricardo의 第1部價值論과 J.S. Mill의 第1部價值論으로부터 繼承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長期均衡」理論은 右下形態의 需要曲線 DD는 Malthus로부터 繼承받은 한편 X軸에 平行線이 되는 實質費用曲線 DD는 Ricardo의 第2部價值論과 J.S. Mill의 第2



〈圖-14〉

部價值論으로부터 繼承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Ricardo의 第1部價值論과 第2部價值論과 第3部價值論 그리고 J.S. Mill의 第1部價值論과 第2部價值論과 第3部價值論, 그리고 Malthus의 價值論 등이 辨證法的으로 Marshall에 있어 集大成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9. 그런데 Malthus에 있어서의 「生産費」概念은, 이미 297·351에 있어 본 바와 같이, 「實質生産費」와 「貨幣生産費」의 二元的 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實質生産費」는 財貨에 包含되고 있는 「投下勞動量=直接勞動+間接勞動+制欲(待望)」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注意해야 할 事項은 Ricardo가 남긴 「制欲」이 資本을 蓄積하는 데 所要된 「制欲勞動」으로서 「實質費用」의 1構成部分을 形成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리하여 「投下勞動量」이 「實質費用」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貨幣生産費」를 그는 또 「供給價格」이라고도 表現하고 있다(163參照). 「供給價格」의 內譯은 ① 原料費 ② 「建物·機械·其他 固定資本의 減價償却費」(depreciation of building, machinery and other fixed capital) ③ 資本利子和 保險料 ④ 賃金 ⑤ 「經營의 總收入」(gross earnings of hanagement) 등으로 되고 있다.⁽⁹¹⁾ 그런데 또 그는 「貨幣生産費」를 「特殊費用」(special cost) = 「直接費」(direct cost) = 「主要費用」(prime cost) 과 「一般費」(general cost) = 「補足費用」(supplementary cost)의 둘로 나누고 그 合計를 「全部費用」(total cost)이라고 부르고 있다.⁽⁹²⁾ 그리고 「特殊費用」= 「直接費」= 「主要費用」에는 (1) 原料費 (2) 賃金 (3) 「工場의 追加的인 消耗」(extra wear and tear of plant), 그리고 「一般費」= 「補足費用」에는 (1) 「耐久的인 工場의 固定費用」(standing charges on account of the durable plant) (2) 「幹部職員의 給料」(salaries of the upper employees) 등이 包含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⁹³⁾

그리고 Marshall에 의하면 「短期供給價格」에는 「主要費用만이 必然的 直接的으로 算入되어야 하나, 補足費用도 間接的으로 多少 影響을 미치며」⁽⁹⁴⁾, 「長期供給價格」에는 「主要費用뿐만 아니라 補足費用을 包含한 全部費用도 包含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고 있다.⁽⁹⁵⁾ 그리고 「經營能力의 供給價格」(supply price of business ability)으로서 (1) 「資本의 供給價格」 즉 利子 (2) 「經營能力과 活力의 供給價格」(supply price of business ability and energy) (3) 「適性的인 經營能力과 必要한 資本을 結合시키는 組織의 供給價格」(supply price of that organization by which the appropriate business ability and the requisite capital are brought

(91) A. Marshall, *The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27, p. 343.

(92) *Ibid.*, p. 359.

(93) *Ibid.*, p. 360.

(94) *Ibid.*, p. 376.

(95) *Ibid.*, p. 362.

together) 등을 들고 있으며, (2)는 「經營의 純收入」(net earnings of management)이 되고, (2)와 (3)을 합친것을 「經營의 總收入」이 된다고 하고 있다.⁽⁹⁶⁾

50. 그러면 Marshall에 있어서의 超過利潤은 어떻게 說明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① Marshall의 剩餘價值論의 「一般理論」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超過利潤一般은 「需要價格으로부터 이에 對應하는 供給價格을 控除한 殘餘」가 된다는 것이다. Marshall은 이것을 「獨占收入」(monopoly revenue)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剩餘價值發生의 「一般理論」을 提示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생각한다.⁽⁹⁷⁾ 剩餘價值一般은 그림 〈圖-14 (2)〉에 있어 生産量이 OQ 가 될때 $D_q - S_q$ 가 되게 될 것이다.

② Marshall의 剩餘價值論의 「特殊理論」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準地代」理論이 될 것이다. 그는 「準地代」(quasi-rent)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機械와 其他 生産用具(machines and other appliances for production)로 獲得되는 收入을 나는 準地代라고 부른다. 즉 어떤 特殊한 機械(any particular machine)가 發生시켜 놓은 所得이다.」⁽⁹⁸⁾

③ Marshall이 確立해 놓은 이 剩餘價值論이야말로 剩餘價值論史가 到達한 總決算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여기에다가 Malthus의 剩餘價值論을 附加하면 [3]의 剩餘價值論의 定式이 된다. Marshall의 剩餘價值論은 [3]의 定式の (A), (B)와 (D)를 表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但 Marshall이 [3]의 定式 (B)에서 「支拂勞動量」을 「實質生産費」 즉 「投下勞動量」이라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258에 있어 이미 言及해 놓은 바와 같이 「支配勞動量」概念은 販賣者側의 立場에 立脚해서 使用하는 概念인 데 대해서, 이것을 購買者側의 立場에서 表現할 때에는 「投下勞動量」이 되지 않고 「支拂勞動量」이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實質費用」概念도 「投下勞動量」概念으로부터 誘導되어서는 안되고, 限界効用·限界價値 生産力 등의 概念으로부터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 Böhm-Bawerk의 剩餘價值論에 관한 定式(397·399 參照)도 옳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Marshall의 (A)(B)와 (D)에 관한 規定에다가 Malthus가 規定해 놓은 (C)만 附加시키면 우리의 剩餘價值論에 관한 定式 즉 가장 「具體的」인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이 完成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여기서 우리는 Marx의 機械 즉 「不變資本」은 生産物에 價値를 「移轉」하는 데 그치고 (384參照), 剩餘價值創造에 아무런 積極的 役割도 하지 않고 있다는 理論이 Marshall의 「準地代」理論에 의해서 밋있게 燬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機械는 「品質向上」을 통해서 「需要曲線을 上方으로 移動」시키는 作用을 하고 또 「極小平均費用을 下落」시킴으로써 「供給

(96) *Ibid.*, p. 313.

(97) *Ibid.*, p. 479.

(98) *Ibid.*, p. 74.

曲線을 下方으로 移動시키는 作用을 하게 된다는 것을 Marshall는 「準地代」概念을 통해서 明示的으로 表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大企業이 小企業보다 有利한 價格으로써 販賣할 수 있는 製造業部門에 있어, 大企業이 小企業보다 費用이 相對的으로 작고 또 收入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大企業의 利潤率이 小企業의 利潤率보다 크다.」⁽⁹⁹⁾ 즉 大資本·小資本이 競爭하고 있는 不完全競爭 즉 費用遞增의 法則이 作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平均利潤率」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Marshall의 理論은 「部分均衡理論」인 데 대해서 Walras의 理論은 「一般均衡理論」이므로 Walras의 理論이 Marshall의 理論보다 上位理論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經濟學의 A만을 알고 B, C를 모르는 정말 웃기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말해 두기로 한다.

51. ① J.B. Clark도 Marshall式的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다음과 같이 展開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供給量을 全量販賣하려고 한다면 (if it all has to be sold) 價格을 그 量의 限界效用으로 매기도록 해야 된다.」⁽¹⁰⁰⁾ 여기서 Clark는 분명히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53의 <圖 2-35>에 있어 Clark는 生産手段=實物資本의 貸主=所有者와 生産手段=實物資本의 借主=資本家를 「雇傭關係」에서가 아니라 「貸借關係」에서 說明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Clark는 「利子の 支拂=資本의 生産物의 購買」이며 또 「賃金の 支拂=勞動生産物의 購買」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된다(453 參照).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解釋해야 될까. Clark도, Jevons와 마찬가지로, 「貸借關係=雇傭關係」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生産手段=實物資本의 貸主=所有者가 生産手段=實物資本의 借主=資本家로부터 받아들인 「貨幣利子」(이것은 「超過利潤」이다)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rightarrow W < \frac{P}{A} \dots P \dots W' \rightarrow G'$ 에 있어 勞動者가 資本家로부터 받은 「賃金」에 의해서 勞動者가 自己가 生産해 낸 生産物을 資本家로부터 購買하듯이, 自己所有의 生産手段=實物資本이 生産해 낸 生産物을 購買하게 된다는 것이다. 「貸借關係」에 있어 生産手段의 所有者가 貸主가 될 때에는 「利子」를 獲得하지만, 「雇傭關係」에 있어 生産手段의 所有者가 스스로 資本가가 되어서 生産할 때에는 「超過利潤」을 獲得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手段의 貸與(loaning)=生産物의 販賣(selling)」⁽¹⁰¹⁾ 「貸借關係=雇傭關係」 「利子=利潤」理論이 成立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資本의 貸與者(lender)는 自己所有의 生産手段이 生産해 내는 生産物一切를 가질 수 있다.」⁽¹⁰²⁾ 여

(99) *Ibid.*, p. 610.

(100) J.B. Clark, *Essentials of Economic Theory*, 1924, p. 114.

(101) *Ibid.*, p. 149.

(102) *Ibid.*, p. 149.

기서 Clark는 「貨與者」라고 하지 않고 「資本家」라고 하고 「生産物一切」를 「超過利潤」이라고 했어야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도 「貸借關係」와 「雇用關係」가 混同되고 있다. 곧 이어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만약 어떤 資本家(employer)가 그 生産手段을 貸與받아 그 貸與의 代價로서 生産物一切를 生産手段의 所有者에게 支拂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¹⁰³⁾ 여기서도 「生産物一切」를 「利子」라고 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必要的 修正을 加하게 되면, 여기서 Clark가 展開해 놓은 理論은, 401·402에서 본 Böhm-Bawerk의 「貸借關係와 雇傭關係의 併存」·「利子=利潤」에 관한 理論과 완전히 一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Clark도 Jevons, Böhm-Bawerk 系統에 속한다는 것이 判明되었을 줄 생각한다.

52.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은, 389에 있어 이미 본 바와 같이,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의 形態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은 Ricardo·J.S. Mill의 第1部價值論인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도 아니고 또 Ricardo·J.S. Mill의 第2部價值論 즉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도 아니고,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을 내걸고 있다는 點에 그 特色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Marx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相異하는 諸生産者에 의해서 生産되는 個別商品의 個別的 價值(즉 個別的 投下勞動量—筆者)는 그 「平均價值」인 市場價值에 의해서 他商品과 交換되며, 따라서 389에서 보았던 바와 같은 「特別剩餘價值」 「超過利潤」이 發生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斷言하거니와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은 Ricardo·J.S. Mill의 第1部價值論인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과 第2部價值論인 「同一」各個別投下勞動價值論보다 劣惡한 投下勞動價值論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Ricardo·J.S. Mill의 第1部價值論·第2部價值論은 틀린 것이 아니고(圖-14)에 있어 그것이 表示되고 있으므로), 「不完全한 것」 Hegel의 用語로 表現하면 「抽象的」이있는 데 대해서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設使 그의 剩餘價值論이 틀리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Marx가 單純商品生産 $W-G-W'$ 과 儼然히 區別되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관한 (그 以前の 어느 學者도 이루지 못한) 明確한 定式을 確立했다는 것은 크게 評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의 剩餘價值論은 Malthus·Marx·Böhm-Bawerk·Marshall 等の 諸理論의 「化學的 結合」에 의해서 비로소 「完全化」, Hegel의 用語로 表現하면 「具體化」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역시 神은, 이

(103) *Ibid.*, p. 149.

點에 있어서도, 大眞理는 한사람의 預言者만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預言者를 통해서 人類에게 啓示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53. 마지막으로 生産過程利潤發生理論과 流通過程利潤發生理論에 관해서 다시 한번 言及해 두기로 하자. Marx가 말하고 있는대로,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 「勞動者」는 「資本家」를 위해서 自己生存을 위한 必要生産物以上の 剩餘生産物을 「生産」해서 「資本家」에게 貢納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封建經濟下에서는 그것으로 搾取가 끝나버리지만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下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資本家の 最大苦悶은 倉庫에 實物剩餘生産物이 大量 쌓여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家에게는 實物剩餘生産物이 販賣되어서 貨幣形態의 利潤으로 變化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W' - G'$ 가 實現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剩餘價値」의 實現 $W' - G'$ 는 「資本家」와 「勞動者」사이의 問題가 아니라 「生産者」와 「消費者」사이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W' - G'$ 은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과 아무런 關聯도 없는 「生産者」와 「消費者」와의 「流通過程」을 表示하고 있다.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 實物剩餘生産物이 生産되어서 그것이 「資本家」의 倉庫에 쌓여 있다는 것과 그것이 「消費者」에게 얼마만큼의 「價格」으로 評價되어 「消費者」가 얼마만큼 그 商品을 需要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別個의 問題이다. 그러나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은 「流通過程」 $W' - G'$ 을 「目的」 「現實性」으로 하는 하나의 「手段」 「可能性」이 된다는 것을 또한 沒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서는 消費過程 즉 「流通過程」 $W' - G'$ 에 있어 「品質向上」을 통해서 「消費者」의 選好 즉 「効用」에 合格하도록 「價格」을 매기는 努力을 해야 되며, 「實質費用引下」의 努力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費用遞增의 法則이 作用하고 있다.) 그리하여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 生産費는 「現實」 「事後」事項으로서 前拂되지만 價格은 「現實」 「事後」事項이 되지 못하고 「計劃」事項 즉 「事前」價格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利潤도 「現實」 「事後」事項이 되지 못하고 「計劃」事項 즉 「事前」利潤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서의 「事前」價格 · 「事前」利潤 · 「事前」効用勞動量 · 「事前」支配勞動量을 「事後」價格 · 「事後」利潤 · 「事後」効用勞動量 · 「事後」支配勞動量으로 轉換시키는 것은 「流通過程」 $W' - G'$ 에 속하는 事項이다. 이리하여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과 「流通過程」 $W' - G'$ 사이에 矛盾關係가 成立되게 된다. 그 理由는 生産費는 前拂된 現實이므로 兩過程에 있어 「事後」로서 固定되고 있으나 t 期の 「生産過程」 $W < \frac{P}{A} \dots P \dots W'$ 에 있어서의 t 期の 「事前」價格, 「事前」利潤, 「事

前]効用勞動量, 「事前」支配勞動量이 t期の「流通過程」 $W'-G'$ 에 있어서도 그대로 t期の「事後」價格, 「事後」利潤, 「事後」効用勞動量, 「事後」支配勞動量으로 그냥轉換된다는保障은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貨幣資本 $G=生產費=有效需要$ 의 充分·不充分이 그것을決定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流通過程」 $W'-G'$ 의 問題 즉「流通論」은 곧바로「恐慌論」으로直通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리 앞질러 한가지 말해 둘 것은, 投下勞動價值論에 있어서는, 「事前」價格=「事後」價格·「事前」利潤=事後利潤 등이 되며, Marx에 있어 그 典型的인 類例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超過利潤도 貨金과 같이「前拂」되는「生產費」「事後」로서 取及되고 있으므로, 즉「生產費로서의 利潤」이 되고 있으므로, 「總生產費=生產物의 總價格=企業의 總收入」이 되며, 一般的 過剩生產理論이 素質적으로發生되지 못하게 되고 있는 데 대해서, 限界効用價值論(支配勞動價值論)에 있어서는「事前」價格·「事前」利潤과「事後」價格·「事後」利潤의 分裂이 銳利하게 露出되고 있으므로 限界効用價值論(支配勞動價值論)으로부터만 一般的 過剩生產理論이 誘導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VII. Keynes · Schumpeter의 剩餘價值論

54. Keynes의 有效需要原理를 因數分解해 보면,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과 Marx의 剩餘價值論이 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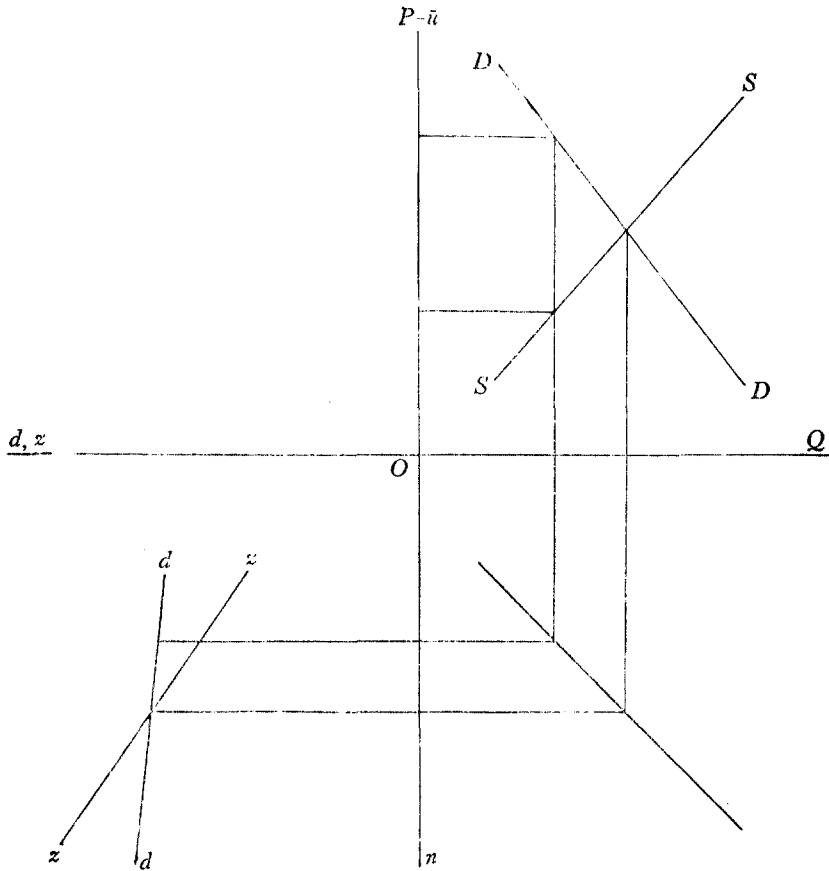
먼저 前者부터 說明해 보기로 한다. <圖-15>의 第1象眼에는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을, 第3象眼에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1産業에 있어서의)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즉 Marshall의 短期「供給價格」·「需要價格」과 Keynes의 「總供給價格」 z ·「總需要價格」 d (1産業單位의)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

$$\begin{aligned} \text{總供給價格} &= (\text{供給價格} - \text{單位當使用者費用}) \times \text{生産量} \\ \text{總需要價格} &= (\text{需要價格} - \text{單位當使用者費用}) \times \text{生産量} \end{aligned}$$

그리고 「總供給價格」 z ·「總需要價格」 d 가 1産業單位表示이므로,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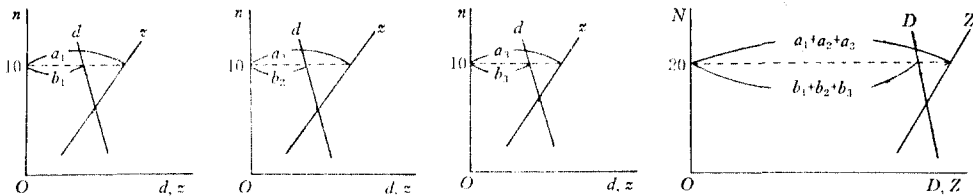
$$\left. \begin{aligned} P &= P(Q) \\ K &= K(Q) \\ P(Q) &= K(Q) \end{aligned} \right\}$$

과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1産業單位의) $d(N) = z(N)$ 은 理論적으로 $N = f(Q)$ 를 통해서(이것은「短期」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다)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圖-15>

다음에 各 産業單位의 總供給價格 $z(N)$ · 總需要價格 $d(N)$ 를 集計하면 Keynes의 巨視理論 有效需要의 原理 $D(N)=Z(N)$ 가 誘導된다(<圖-16>).



<圖-16>

55. 따라서 다음 事項이 成立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Keynes의 巨視理論으로서의 有效需要의 原理(所得決定의 理論)은 오직 Marshall의 微

視理論으로서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으로서의 短期均衡理論과 合致되며, 그 以外의 어떠한 微視理論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eynes플러스 Walras 따위는 全的으로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기로 하자.

② Marshall의 微視理論이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되고 있으므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W' - G'$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것 같이, Keynes의 巨視理論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A.H. Hansen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根本적으로 總需要問題에는 2個의 接近方法이 있다. MV 接近方法과 $I+C$ 接近方法이다. 兩者의 根本的 差異는 簡單히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MV 接近方法은 〈總量으로서의 需要〉(demand as a global quantity)를 取扱하며 獨立된 構成部分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I+C$ 接近方法은 大量의 固定資本을 使用하는 社會가 消費財生産에 適用되는 社會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原理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強調한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需要는 ㉠ 消費財와 ㉡ 投資財라는 2個의 전혀 別個의 種類의 生産物에게 向해지게 된다.」⁽¹⁰⁴⁾ Hansen도 貨幣數量說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는 데 대해서,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된다는 것을 明確하게도 認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可笑로운 것은 Samuelson이 그의 베스트셀러인 『經濟學』(11版) 가운데에서 $C+I+G=MV$ 라고 記述함으로써 (p. 774) 그의 特技인 數學的 能力을 誇示하고 있는 것은 좋았지만 이것은 「商品生産一般을 資本主義와 混同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그의 친구 Sweezy의 말을 理解·吟味할 수 있는 能力이 그에게는 先天的으로 缺乏되고 있는 데에서 오는 嫩센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두어야 한다.

③ 다음에는 Keynes가 어떻게 해서 Marx의 剩餘價值論을 繼承하고 있는 Marx의 直系가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言及해야 할 順序이지만 이것은 後에 恐慌論을 取扱하는 자리에서 다시 言及하기로 한다.

56. Schumpeter는 自己自身은 Walras를 繼承할 心算으로 있었던 模樣인데, 그의 理論體系를 細密히 檢討해 보면 그도 Walras가 아닌 Marshall의 直系였었다는 結論이 나오게 될 줄 안다. Schumpeter가 主著 『經濟發展의 理論』에 있어 展開해 놓은 中心理論은 「循環→發展→循環」에 관한 理論이었다고 할 수 있다(428 參照).

그런데 『寡占經濟와 케인즈經濟學』⁽¹⁰⁵⁾의 43에 있어 우리가 言及해 놓은 바와 같이,

(104) A.H. Hansen, *A. Guide to Keynes*, 1953, p. 26.

(105)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3年 12月

Schumpeter가 『經濟發展의 理論』에 있어 展開한 「循環→發展→循環」의 過程은, 그의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 있어서는, 「完全競爭→獨占→完全競爭」의 過程으로서도 表現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또 Marshall의 「長期→短期→長期」의 過程과도 一致된다고 說明해 둔 바 있다.

이것을 說明하기 위해서 428의 <圖 2-33>을 引用해 보기로 하자.

<圖 2-33>의 (1)은 「循環=長期=完全競爭」의 狀態를 表示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過程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은 消滅되게끔 되고 있다. 그런데 이 「循環=長期=完全競爭」을 突破하는 것이 「新結合의 遂行」이라는 것이다(427 參照). 그리하여 「新結合의 遂行」에 의해서 「發展=短期=獨占」이 發生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428에 있어서의 <圖 2-33>의 (1)이 (2)로 移行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圖 2-33>의 (1)·(2)에 있어서의 KK 와 $KK'K$ 는 둘 다 供給曲線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67에서 이미 우리가 言及한 바와 같이, Schumpeter는 Wieser가 提起해 놓은 「代替費用」概念을 完成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前記한 바와 같이(352 參照), 代替費用概念에 立脚해서 Marshall을 輕視하고 심지어 「Jevons·Menger·Walras 等으로부터의 Marshall의 乘離는 無視될 수 있다」라는 言語道斷의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新結合의 遂行」을 論할 때에는 費用에 관한 問題가 다시금 再登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이미 429에 있어 言及해 놓은 바와 같이, 「新結合의 遂行」 즉 技術革新의 核心은 ㉠ 生産性이 相對的으로 높은 勞動手段의 採擇과 그에 따르는 極小平均費用引下와 ㉡ 品質向上에 의한 需要曲線의 上方으로의 移動이라고 말해 둔 일이 있다. Schumpeter自身은 「企業者」의 「意志」와 「行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430 參照). 그런데 여기에 問題가 發生된다는 것을 Schumpeter는 明確하게라고는 할 수 없지만 六感的으로 感知했다고 우리는 善意로 解釋해 주고자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圖 2-33>의 (1)·(2)에 있어서의 KK · $KK'K$ 가 그가 主張하는 대로 代替費用曲線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困難하게 되기 때문이다. 238에 있어 우리는 이미 Schumpeter가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取함으로써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m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價格決定理論의 構成을 目標로 하면서도 <圖 1-27>의 供給曲線 SP 가 代替費用曲線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理論展開에 있어서의 分裂相을 露呈했다는 말을 할 바 있다. 그런데 이 변에는 自己가 過去에 排擊해 오던 「實質費用」의 概念을 提示하기가 커부스러웠든지 「實質費用」概念을 「第二의 流通經濟的 費用概念」(der zweite, der verkehrwirtschaftliche Kostenbegriff) (a second concept of cost)라는 怪異한 名

稱을 붙여서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⁶⁾ 여기서 Schumpeter는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流通經濟」라고 呼稱하고 있다. 이것은 Schumpeter의 理論體系에 있어서의 極히 重大한 轉換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指摘한 經濟學者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附言해 두기로 한다. 結局 Schumpeter의 剩餘價值理論도 Marshall의 剩餘價值理論과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高品質商品에는 高價格」(für das bessere Gut erzielte höhere Preis), (the higher price received for the better commodity)⁽¹⁰⁷⁾ 「機械의 導入은 보다작은 費用에 의해서 生産物單位를 生産」한다. (die Produkteinheit mit geringerem Aufwand zu erzeugen,) (to produce a unit of product with less expense) 「그 生産物의 價格과 새로운 費用 사이에 差額」(eine Diskrepanz zwischen ihrem bisherigen Preis und ihren neuen Kosten zu schaffen,) (to create a discrepancy between their existing price and their new costs)을 만드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¹⁰⁸⁾ 이러한 「新結合의 遂行」에 관한 말은 Walras와의 理論과는 아무 相關이 없고 Marshall의 理論으로부터 誘導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57. 그리고 Schumpeter도, Marshall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利潤率平均化」에 反對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企業者利潤이 平均化 된다는 것은 事實上 全的으로 存在하지 않는 傾向이며 이에 관해서 말할 아무것도 없다. 同一場所, 同一時刻 그리고 同一部門에 있어서는 利潤이 同一하지 않다는 것이 事實인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利子和 利潤을 同一視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⁹⁾

58. 이와 같이 Schumpeter는 Walras系列이 아니고 Marshall系列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arshall이 「時間의 相 밑에서」, 「一時的 均衡」·「短期均衡」·「長期均衡」等 3個形態의 「均衡」에 관한 理論으로, 古典經濟學을 統合해서 「羅列」시켜 놓은데 그친 데 대해서, Schumpeter는 「新結合의 遂行」을 導入시켜서 「短期→長期→短期」式의 發展理論을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과 長期均衡理論을 結合完成함으로써 Marshall을 止揚했다는 것도 附言해 두려고 한다.

(106) J.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2. Aufl., 1926, S. 38: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34, p. 30.

(107) *Ibid.*, S. 214; p. 134.

(108) *Ibid.*, S. 211; p. 133.

(109) *Ibid.*, S. 235.

VIII. Samuelson · Robinson · Sraffa의 剩餘價值論

59. Sweezy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近代經濟學者들의 利潤의 發生과 本質(the origin and nature of profit)에 관한 問題에 대한 無關心은 深刻한 問題(profound significance)이다.」 사실상 剩餘價值의 本質에 관한 論議는 Schumpeter 以後에는 存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대신 利潤率變動, 利潤의 企業者와 利子受領者에 대한 分割問題가 登場하게 되었다.」⁽¹¹⁰⁾

요즘의 經濟學(앞으로 이것을 「現代經濟學」이라고 불러두기로 한다)이 어떻게 剩餘價值의 問題를 비롯해서 經濟學의 核心問題에 대해서 英터리理論을 展開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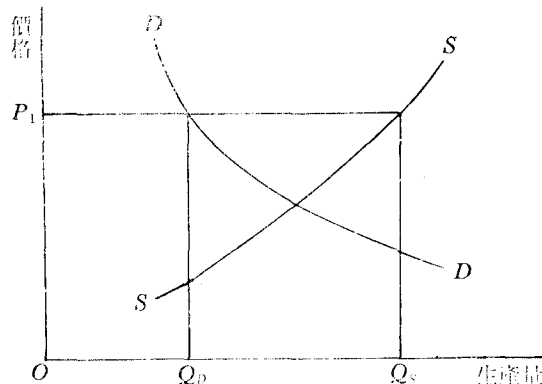
① 먼저 新古典派(어떤 사람은 新新古典派라고도 하지만)의 代表理論으로서의 Samuelson의 『經濟學』(11版)을 보기로 하자. 2次大戰後 自由世界에 있어 典型的인 標準的 敎課書로서 取扱되었으며 따라서 또 가장 많이 販賣된 이 책에 있어서의 價格理論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되고 있다. 60年前 筆者는 어느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장날(日曜日)이 되면 돼지 所有者는 돼지를, 닭 所有者는 닭을 市場에 가지고 나와서 販賣하다가 안팔리면 집에 도로 가지고 가서 「自家消費」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즉 거기서 去來되는 商品은 價格에 따라서 「自家消費」도 하고 販賣도 하는 「半商品」이었다(167 參照). 그런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의 中心地인 美國에서 살고 있는 Samuelson이 60年前的 韓國 시골의 市場에 있어 成立되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適用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Keynes의 巨視理論을, $C+I+G=MV$ 式으로 結合해서 「新古典派總合」이라는 것을 形成해 놓고 經濟學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可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言)이 있다고 해서 그 具體的인 現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幼稚한 일이다. 一角獸(unicorn)이라는 用語가 있다고 미리에 뿔을 달은 짐승같은 것이 장글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完全神」이라는 用語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幼稚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110) P. Sweezy, *op. cit.*, p. 130.

探取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經濟學을 안배운 사람도 알 수 있는 簡單한 意味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第27章)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嚴密히 따져보면 常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넌센스이다(On examination, common sense may prove to be nonsense)」。 (序論) 그런데 Samuelson에게 한마디 해두어야 할 것은 「貴下의 常識에 어긋나는 理論도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經濟學敎課書에는 高級經濟理論의 紹介를 위해서 數學式이 記述되고 있다. 그러나 根本經濟原理를 成功的으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論理的 推理가 核心이다.」(Logical reasoning is the key to success in the mastery of basic economic principles (序論))

그런데 우리는 Samuelson이 「數學式的 記述」에는 能하지만 「論理的 推理力」이 缺乏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60. 한편 Samuelson의 오랜 동안의 라이벌인 Robinson이 쓴 『現代經濟學』(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이라는 책도 形便없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도 역시 祖師 Marshall을 理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지 못하고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從來의 「似而非敎課書」(would-be elementary textbooks) (第5章 6)에는 <圖-17>과 같은 平面圖만이 掲載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第3의 次元」인 「歷史」가 除外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平面圖에 垂直線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Marx를 공부했다고 하는 Robinson이 이 무슨 怪異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三次元的 空間下에서 價格이 OP_1 일 때 每月 「在庫」가 Q_0Q_1 만큼씩 增加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60年前의 筆者가 直接 經驗한 바에 의하면 그 「在庫」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 - G'$ 밑에서 「全量」 「即刻」 「最大價格」으로 販賣해야 할 「在庫」가 아니라, 팔아도 좋고 「自家消費」해도 좋은 「半商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Samuelson도 Robinson도 取



<圖-17>

하고 있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單純商品生産 $W-G-W'$ 이 「半商品經濟」라는 것을 Samuelson은 물론 「歷史」를 공부했다고 하는 Robinson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도 剩餘價値의 本質에 관한 理論展開를 볼 수 없다. 이 책도 Samuelson의 책과 같이 B級에 속하는 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見解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 책에는 「事前利潤」(ex ante profit) · 「事後利潤」(expost profit)의 概念을 導入했다는 點을 勘案해서 (第6章 3) B⁺의 點을 매겨 두기로 한다.

61. 그런데 Robinson은 自己固有의 剩餘價値理論을 展開하지 못하면서 「經濟思想의 中心課題(利潤의 本質)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Sraffa의 『商品의 手段에 의한 商品生産』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第6章 3)고 말하고 있다. 이 奇妙한 書名을 갖고 있는 Sraffa의 책은 겨우 37頁밖에 안되는 小冊子이지만 出版後에 굉장한 波瀾을 일으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나의 見解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두어야 하겠다. 이 책은 完全無缺하게 잉터리 理論으로서 構成되고 있으며, Ricardo理論의 아킬레스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最惡理論(賃金上昇→利潤低下→價格下落)을 出發點으로 해서 誤謬를 擴大再生産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生産手段은 前拂되는데」 「賃金은 事後的(post tactum)으로 後拂된다는 것이다.」 이 리하여 「資本에 의해서 前拂되는 賃金이라는 古典派經濟學者의 發想은 拋棄되게 되는 것이다.」⁽¹¹¹⁾ 「事後的 賃金」이라는 用語는 生産物이 販賣된 後에 支拂되는 賃金(따라서 販賣안 되면 支拂될 수 없는)이라는 것을 Sraffa는 알고서 이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지.

② 그러면 生産手段은 「生産費」가 되지만 「賃金」은 「生産費」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生産費라는 用語는, 數量的 意味에 있어서의 資本이라는 用語와 같이, ……이 著書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Marshall의 <實質費用>과 限界生産力理論에 包含되고 있는 <資本의 數量>을 보라. 이러한 先入觀念으로부터 脫却하는 것이 이 책의 目的의 하나이다.」⁽¹¹²⁾ 이 정말 웃기는 말이 아닌가. Marshall이 古典經濟學을 清算整理해서 간신히 確立해 놓은 「實質費用」을 抹殺하는 것이 이 冊의 目的이라고 하고 있다.

③ 「生産費」概念이 없어도 「剩餘價値」概念도 自然 消滅되며, 「剩餘價値」가 아프리카의 的으로 誘導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그리고 「基礎的 生産物」「非基礎的 生産物」 등의 概念은 不必要한 概念이다. Ricardo 以來 英國에 있어서의 穀物生産不足의 탓으로 「穀物」이 모든 英國經濟學의 基礎가 되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Sraffa는 「穀物」대신 「基礎的

(111) P. Sraffa,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1960, p. 6, p. 10.

(112) *Ibid.*, p. 9.

潤率은 財貨의 價格이 決定되지 않으면 決定되지 않는다。」⑥ 「價格은 利潤率이 決定되기 前에는 決定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剩餘의 分配는 商品價格이 決定되는 同機構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同時에 決定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傍點筆者)⁽¹¹³⁾ 라는 어마어마한 結論을 너무도 簡單하게 誘導해 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 W'$ 에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는 Walras의 法則과 一般均衡理論을 適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見解는 한마디로 이 理論은 徹頭徹尾 틀렸다는 것이다. ⑦ Marshall의 理論에 있어서는 「事前」價格과 費用 $P = P(Q)$, $K = K(Q)$ 이 獨立變數이므로 $P(Q) - K(Q)$ 로서 「事前」利潤이 從屬變數로서 誘導될 수 있게 되고, Marx의 理論에 있어서는 貨幣資本 $C + V$ 이 獨立變數이며 「剩餘價值率」로부터 誘導된 「平均利潤」이 역시 獨立變數로서 登場하게 됨으로써 「生産價格」은 從屬變數로서 誘導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Sraffa는 (B)에 있어 要素價格·利潤率·價格이 모두 獨立變數로서 「同時的 相互決定」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Marshall에 있어서도 「生産費」를 「事後」로 하고 「價格」을 「事前」으로 했고, Marx에 있어서도 貨幣資本 $C + V$ 즉 「生産費」를 「先」으로 했고 「生産價格」을 「後」로 했다. 그런데 Sraffa의 (B)에 있어서는, 「要素價格」과 「利潤率」·「生産物價格」이 「同時相互決定」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더구나 Sraffa의 「生産方程式」에서는 「交換의 一般均衡」이 完全히 除去되고 있다. Walras의 「生産方程式」에도 「生産過程」이 包含되고 있지만, 그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即刻生産」으로서 「交換의 一部分」이라고 看做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Sraffa의 (B)에는 「生産方程式」만이 있고 「交換의 一般均衡」이 完全히 除去되고 있다. 그러면 價格決定은 「市場」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認知될 수 있다는 말인가. 컴퓨터를 통해서인가. Sraffa의 (B)가 可能하기 위해서는 社會의 全生産이 한사람에 의해서 進行되는 때에 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넌센스理論이 理論經濟學에 功獻한 것이 하나 있다면 「同時的 相互決定」을 主張하는 一般均衡理論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m}{A} \dots P \dots W' - G - W'$ 에 適用시킨다면 이러한 넌센스가 發生된다는 하나의 標本을 提示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未知數의 數와 方程式의 數만 같으면 解를 얻을 수 있어 萬事 OK가 된다는 思考方式이 여기서 壁에 부딪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限界効用理論을 그는 排擊하고 있었으므로 「事前」利潤·「事前」價格과 「事後」利潤, 「事後」價格의 差別을 理解할 能力이 先天的으로 그에게는 缺如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3) *Ibid.*, p. 6.

r)에 대해서 $k+1$ 個의 方程式이 成立되고 變數의 數가 하나 더 많게 된다. 그리하여 Ricardo의 手法에 따라서 「賃金」을 「外生變數」로 登場시키면 이 聯立方程式도 解를 가질 수 하다고 하고 있다. 이 「同時相互決定」理論이 완전히 넌센스밖에 안된다는 것은 앞에서 詳述했으므로 여기서는 再說하지 않기로 한다.

64.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이 國民所得이 「固定」되고 있으므로 (이것도 넌센스이다) 賃金과 利潤은 하나가 上昇하면 다른 하나는 低下된다는 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賃金이 獨立變數가 되고 있으므로 利潤은 從屬變數가 되고 따라서 (C)에 있어서의 賃金·利潤率·價格의 「同時的相互決定」과 矛盾되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여튼 이 點에 있어 Sraffa는 Ricardo의 亞流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Ricardo가 남긴 「最惡의 遺物」인 「勞動의 生産手段에 대한 比率」을 繼承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產業을 「勞動의 生産手段에 대한 低比率」(low-proportion) 產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高度화된 大規模生産과 「勞動의 生産手段에 대한 高比率」(high-proportion) 產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高度화되지 않은 小規模生産으로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그리하여 Ricardo의 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에 立脚해서, Ricardo는 外生變數 「賃金」이 上昇하면 하는 것을 想定했는데 대해서, Sraffa는 外生變數 「賃金」이 下落하면 하는 것을 想定해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高比率」産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은 小規模生産은 賃금이 下落하면 雇傭量이 많기 때문에 「賃金費用減少額」($-\Delta w \times$ 雇傭量)이 크게 되며, 한편 「利潤費用增加額」($+\Delta r \times$ 生産手段의 量)은 生産手段의 量이 작으므로 이것도 작게 됨으로써 $(-\Delta w \times$ 雇傭量) $>$ ($+\Delta r \times$ 生産手段의 量)이 되어 結局 「黑字産業」이 되고, 「低比率」産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高度화된 大規模生産에 있어서는 反對現象이 發生됨으로써 「赤字産業」이 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 Sraffa 理論의 矛盾은 그 極에 達했다고 할 수 있다. 「高比率化」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 즉 「大規模生産」은 「生産費引下=利潤率引上」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赤字産業」이 되고, 「低比率化」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은 小規模生産」은 「黑字産業」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Ricardo는 그래도 現實的인 「賃金上昇」을 前提했는데 Sraffa는 絶對的으로 現實的으로 發生될 수 없는 「賃金下落」을 前提했고, 더구나 「低比率」産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은 大規模生産 즉 低生産費=高利率産業이 「高比率」産業 즉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은 小規模生産 즉 高生産費=低利潤率産業보다 賃金下落時에 「赤字」를 본다고 하고 있는 것만 해도 全的으로 非現實的이고 틀린 理論인데, 거기다가 또 誤謬를 附加시켜 「低比率」産業과 「高比率」産業이 「同一利潤率」(uniform rate of profits)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¹¹⁷⁾ 그러면 Sraffa 理論의 誤謬의 根本原因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根元的 必然」인 効用과 投下勞動 換言하면 「事前」價格과 實質費用의 差異(偉大한 Marshall이 잘 整理해 놓은 것)을 理解하지 못한 데에서 發生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5. Sraffa에 있어서도 剩餘價値의 本質에 관한 解明은 發見할 수 없다. 「利潤率은 前拂 生産手段 즉 資本에 比例하여 分配되어야 한다」는 Ricardo式 言明이 있을 뿐이다.⁽¹¹⁸⁾ 그러나 Sraffa도 틀렸지만 Sraffa가 攻撃해 마지 않았던 新古典派도 틀렸다.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raffa 論議의 主眼點은 利潤率은 資本의 限界生産力이 아니라는 데 있다」(第6章 3) 정말 옳은 말이다. 生産手段의 限界價値生産力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의 「上限價格」을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319 參照).

한편 新古典派의 剩餘價値論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있다. 「新古典派의 立場에서는 資本의 限界生産物이 그 準地代(즉 利潤)가 된다는 것이다.」(傍點筆者) 그리고 또 끝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繼續해서 하고 있다. 「만약 機械가 永久的으로 耐久的이라고 한다면 機械의 限界生産物은 利子率과 같다.」(傍點筆者)⁽¹¹⁹⁾ 이리하여 新古典派의 剩餘價値論은 Jevons·Böhm-Bawerk·Clark等의 系統의 「貸借關係」와 「雇傭關係」를 同一視하고 있는 「利子=利潤」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⁰⁾

66. Sraffa가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分配의 變化에 의한 價格變動」(price-movements which accompany a change in distribution)에 관한 理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貨金下落時 赤字産業과 黑字産業 사이에 balance를 回復하기 위한 價格變化가 發生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¹⁾ 그리고 그는 이 Ricardo가 남긴 最惡의 理論에 立脚해서 그의 貨幣理論을 展開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Ricardo以來的 貨幣理論에 관한 책을 단 한 卷도 읽지 않

(117) 「貨金下落時 利潤率이 發生될 때에도 價格은 固定되고 있다고 假定하기로 하자. 어떤 産業에 있어 貨金下落에 의해서 節約(save)되는 額은 雇傭量의 數에 依存하며, 한편 同一利潤率로 支拂되는 利潤(paying profits)은 使用되는 生産手段의 總價値에 依存하게 되므로, 貨金과 利潤의 支拂(payments for wages and profits)에 있어, 低比率産業은 赤字가 되는 데 대해서, 高比率産業은 黑字를 發生하게 될 것이다.」(Ibid., p. 13) 여기서 Sraffa는 ④ 利潤을 生産費로 取扱하고 있으며 ⑤ 「同一利潤率」을 前提하고 있는데, 「固定된 價格」이라는 前提下에서 貨금이 「下落」되었다고 하면, 「扣除利潤理論에 立脚해서, 利潤率이 「增加」되어야 하며, 따라서 「利潤費用 支拂額($r \times$ 生産手段의 量)」은 「利潤費用增加額($dr \times$ 生産手段의 量)」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8) Ibid., p. 6.

(119) C.E. Ferguson, *The Neoclassical Theory of Production Distribution*, 1969, p. 285.

(120) Ibid., p. 18.

(121) Ibid., p. 14.

고 있다는 證據가 여기서 歷歷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不變의 價値尺度」는 存在해야 되며, 그리하여 그가 創作해 낸 것이 「合成商品」(composite commodity)이라는 怪物이다. 「비슷하게도 이 條件을 갖춘 個別的 商品을 發見할 수가 없을 것 같다. 商品의 混合體(mixture of commodities) 즉 合成商品이라는 것이 있어도 靚찮을 것이다.」⁽¹²²⁾ 「商品의 混合體」 「合成商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쯤되면 이것은 經濟理論이 아니라 이솝 童話가 되고 만다.

그리고 「日字勞動量(dated quantities of labour)에의 還元」이라는 것 $(L_a w + L_{a_1} w(1+r) + \dots + L_{a_n} w(1+r)^n + \dots = AP_a)$ 은 Ricardo理論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Böhm-Bawerk의 「絕對生産期間」을 投下勞動量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본다면 잘못일까.

67. 이리하여 우리의 結論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Samuelson의 말대로, 高等 數學을 계법 驅使해서 高級理論을 展開하고는 있지만 雙方이 logical reasoning을 갖고 있지 않는 「資本論爭」·「剩餘價値論爭」은 結局 「誤謬 對 誤謬」의 鬪爭이 되고 말았다고.

(122) *Ibid.*, p. 18.